

# 20

## 대학내일



No.858 2018.7.9~2018.8.19

ISSN 2465-7883

### SPECIAL

인생 미술관을 찾아  
'미캉스' 한번 떠나볼까?

미술관 좋은 줄 모르겠다는 당신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미술관 8

### ZO'S LIFE

생각이 많아 피곤한 사람을 위한 5가지 처방

+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좋아하는 거지만 없어도 죽는 건 아니야

을의 하루 '잡지사 에디터' 편  
그냥 에디터를 꿈꾸지 말아요

### TRAVEL

8인이 말하는 내 인생 최악의 여행  
여름엔 에어컨 있는 집이  
피서지라는 걸 잊지 맙시다

연극연7 두 번째 작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창작연극으로 탄생!  
작은 무대에 담은 **전 세계**, **150분**에 담은 **100년**의 시간!



# 창문 너머 100년

2018.06.12-2018.09.02 대학로 자유극장



여름방학 맞이 대학생 특가!  
**50% 할인**

- 할인기간 : 6/28 ~ 7/22 (공연일기준)
- 적용매수 : 1인 1매 한정
- 티켓 수령 시 학생증 필참, 미지참 시 차액 지불  
(12학년 이상 고학번 재학생명서 필참, 대학원생/사이버대/방송통신대 적용 불가)

원작 요나스 요나손(Jonas Jonasson) 작 지이선 연출 김태형

출연 서현철, 오용, 장이주, 양소민, 김도빈, 이진희, 손지윤, 주민진, 권동호, 이형훈 제작 ㈜연극열전 문의 02-766-6007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연극열전 [www.thebestplay.co.kr](http://www.thebestplay.co.kr)



COVER MODEL

---

**EDITOR**  
김신지 summer@univ.me

**PHOTOGRAPHER**  
리에 Rie

**STYLIST**  
송희준

**HAIR & MAKEUP**  
한주영 black lip

**SONG HEE JUN**

송희준  
모델·배우

홍익대 회화과 13







01

패션지에서 보던 얼굴을 만나니 반가워요. 미대생이 어떻게 모델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지 궁금해요.

평소 필름 작업을 하는 포토그래퍼 분이 페이스북에 모델이 아닌 일반 학생들 중에 같이 작업할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걸 보고 제 친구가 그분한테 제 사진을 보냈어요. 그걸 계기로 인연이 닿아서 밥 먹거나 차 마시거나 산책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게 됐어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이었는데, 그 작업이 쌓이다 보니 또 주변 분들하고 연결되어 다른 작업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델 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02

학업과 병행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았나요?

전공이 미술이다 보니 오히려 저한테는 시너지가 많이 나는 작업이었어요. 그림 그리는 거나 모델로서 사진 작업을 하는 거나 또 영상 작업 하는 게 다 비슷한 일 같아요. 비슷한 일이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전문 모델도 아니고 전공도 따로 있다 보니 오히려 부담 없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면도 있었어요.

03

안녕바다, 움크, 단의 뮤직 비디오에도 출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촬영 다녀온 곳들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뮤직비디오 촬영 때는 주로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서.(웃음) 단 MV 촬영 때는 삿포로에서도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야 하는 시골 마을에 갔는데 눈이 많이 와서 정말 추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베를린이 너무 좋았어요. 안녕바다 MV 촬영으로 서울 정도 있었고 최근에 다시 여행을 갔는데, 포츠담이라는 근교 도시에 '상수시' 궁전이 있거든요. 왕들의 여름 별장이었던 곳인데 상수시가 근심이 사라지는 곳이라는 뜻이라요. 거기 갔을 때 정말 평화롭고 좋았어요.

04

곧 코스모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어떤 감회가 드나요?

그냥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원래 마음 가는 대로 하는 편이라.(웃음) 아직 졸업 전이라면, 전공과 상관 없는 것들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1학년 때 제가 졸업할 때쯤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을 못 했거든요.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고, 다가오는 것들을 너무 경계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여행하듯 살고 싶다고 늘 생각해요. 여행을 하면 우연이 주는 행복이 크잖아요. 우연히 누군가 만났다, 우연히 무얼 발견했다 하는. 그런 우연들, 내가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들 모두를 선물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자세하게 느끼고 싶어요.

05

평소 취향이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소개해준다면?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요, 식물이나 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또 자연스러운 것들은 뭐든 좋아하는 편이에요. 평소에 쉴 때는 그냥 걸어도 돼요. '걷기의 인문학'이라고 걷기를 통해 삶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다룬 책이 있는데요. 저는 산책이라는 것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좋으면 좋은 대로 좋고, 힘들 땐 힘든 대로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틈틈이 산책하면서 자연이 주는 좋은 것들을 많이 느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06

이번 주 스페셜 주제가 미술관이네요. 전공자로서 애정하는 곳이나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원주에 있는 '유지엄 산'도 너무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에서라면 저는 '성곡 미술관'을 추천하고 싶어요.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곡 미술관이 광화문 안쪽에 있는데, 미술관에 붙어 있는 카페가 숲속에 있어요. 그곳이 너무 좋아요. 가서 전시도 보시고, 카페도 둘러보며 숲속에서 쉬고 오는 기분을 느끼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7

졸업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히스테리아>라는 단편 영화를 찍었어요. 당장은 그 영화로 영화제에 참석할 것 같고요(\*인터뷰 후, 제17회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일로는 연기 쪽을 더 하게 될 듯해요. 그림도 계속 그릴 거고요. 학교에서 그림 그리던 게 최근에 새로운 작업 맥락이 잡혔거든요. 저는 사실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 못하는 사람이라 제 일 하고, 그림 그리고, 산책하는 게 일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큰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건강하게 즐겁게 매일을 살고 싶어요.

11  
**READER'S LETTER**

12  
**주간줍줍**  
에디터의 취향으로 이주에 주운 것들

13  
**20'S VOICE**  
요즘 내가 듣는 유일한 칭찬  
이겼던 치킨이닭



**CONTENTS**  
No.858 2018.7.9~2018.8.19

14  
**SMALL MIND**  
세상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16  
**BAMBOO FOREST**  
#당날대숲 #무책임의 끝 #프로대중러

28  
**MY CAT**  
고양이가 사람일 수 있다는 증거7

30  
**20'S LIFE**  
해외 봉사 가면 생길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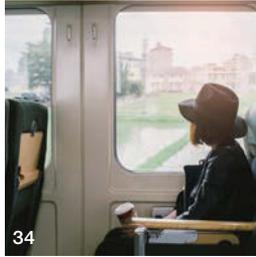
32  
**NEVER MIND**  
생각이 많아 피곤한 사람을 위한  
5가지 처방

34  
**TRAVEL**  
내 인생 최악의 여행

38  
**을의 하루**  
잡지사 에디터 편

40  
**THINK**  
대학내일 미워하는 이야기.txt

42  
**20'S LAB**  
20대 최애 아이템 ● 컬러렌즈



**SPECIAL**



**인생 미술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거 아니? 산 살짝 넘고 바다 잠깐 건너면 탁 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인생샷 100장 남길 수 있는 곳부터,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건축물을 자랑하는 곳까지 매력 넘치는 미술관들이 많다는 걸 물어봄, 여행갈 때 잠깐 들르는 거 말고 목적지로 찍고 가도 좋을 만한 미술관 8곳을 소개한다. 인생 미술관이 되어줄 곳들로 '미캉스' 한번 떠나볼까?

44  
**WHAT'S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45  
**OUTCAMPUS**  
올여름 버닝할 수 있는 활동 BEST 4

#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부팀장 정문정

## MAGAZINE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권혜은 hyen@univ.me  
서재경 suhjk@univ.me  
학생 에디터 김은지 김혜원 문소정 정다빈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인 남미가 miga@univ.me

## DIGITAL MEDIA

파트장 정문정 moon@univ.me  
에디터 김슬 dew@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배다솜 sombang@univ.me  
학생 에디터 권용범 구하민 박소영 이진영  
정다운 허정민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인 김지현 uujuinn@univ.me  
이승은 lidy@univ.me  
김은미 mongmigg@univ.me  
조범식 booomsik@univ.me

## MEDIA COMMUNICATION

파트장 홍승우 sseung@univ.me  
책임에디터 김효은 hiho@univ.me  
조종재 woongjae@univ.me  
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이지애 ja.lee@univ.me

## BRAND JOURNALISM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에디터 조아라 ahrajo@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정우미 woomi@univ.me

#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신예지 이혜민  
매니저 손유리 조하니 김지영 사원 권소영 안예지 조지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김영현 이재우  
책임매니저 이지연 유효정 홍보미 육혜진 권오태 책임에디터 김민정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이인재 사원 김준호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조소라  
책임매니저 김동하 양현정 홍보팀 매니저 한희진 이혜인 신호영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문왕기  
책임매니저 신현정 허이슬 김예림 박미소 정영수  
매니저 송태광 에디터 정혁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수석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박종남 이은지  
매니저 김규태 김다운 이상복 김유진 탕예 정유진 한문규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황주랑 사원 정규홍

###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수석 박지호  
매니저 봉장종 강혜빈 임은비 최진성 박상덕 최정인  
사원 양제희 이민우

## 채용마케팅본부

본부장 김종원 수석에디터 이정섭 책임매니저 최규성

### 채용마케팅1팀

팀장 유제문 수석 홍성우  
매니저 김형민 서창호 정희성 이성훈 박연우  
사원 이종혁 이윤성 이정영

### 채용마케팅2팀

팀장 유진혁 매니저 이준호 정기현 안창민 허정남  
사원 가민희 윤길주 김홍빈 김도희

### 채용마케팅3팀

파트장 신재영 매니저 이지현 최승현 사원 조은솔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책임매니저 남승희 김현주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이아를 사원 송재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수석 최은혜 책임매니저 권예빈 매니저 김민주 사원  
송수진 이정수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수석 이진희 책임매니저 이교영 홍새봄  
매니저 김애리 박소영 신예지 이나운

###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양준호 이연재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사원 김소영 설다운 박지현

###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자성  
매니저 조현상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책임매니저 양상범 박정은 명범준  
매니저 박상현 최은원 권민희  
사원 최창희 김나래 김나영 신은지

##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수석 진우경 강국현 책임매니저 이재혁  
매니저 송정훈 정혜인 이재은 사원 김지수 김하영 윤철한

##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문술이 박진수 효영성  
책임연구원 송해운 김금희 연구원 이재훈 정은미 지승현 장지성  
에디터 남민희 사원 김다희

## 크리에이티브센터

파트장 정은우 전단비 수석 이윤경  
책임매니저 윤정심 매니저 김소연 신재인 사원 최용진 홍서연

##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수석 임남훈 김부록 하윤희 심재은 김진의  
책임매니저 고은영 강주빈 김상호 이은주 매니저 김가연 박혜진 조이슬

##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운선 책임매니저 원종규

##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 인재경영팀

팀장 박준하 책임매니저 김이슬 매니저 이상엽 이소훈

# 20 대학내일

## PICK ME

아래 장소에서 대학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CAMPUS

(가나다순)

#### 가천대

도서관, 바이오나노대학(평생교육원), 지하철역, 비전타워

#### 가톨릭대

베리타스관(도서관), 마리아관, 김수환추기경국제관, 다솔관

#### 건국대

도서관, 산학협동관, 공학관, 경영관, 후문, 인문대, 학생회관

#### 경북대

북현회관, 도서관, 경상대, 복지관, 공학관 식당, 정보관 식당

#### 경희대

청운관, 중앙도서관, 푸른솔문화관, 문과대, 정경대, 경영대, 한의대, 음악대, 호텔경영대, 생활과학대, 카페 양이 춤을 추는 커피네

#### 경희대(경기)

학생회관, 우정원, 공학관, 국제경영대학관, 중앙도서관,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 계명대

도서관, 바우어관, 공학관

#### 고려대

과학도서관, 중앙도서관, 사범대(신관), 중앙광장1, 중앙광장2, 문과대, 국제관, 우당관, 학생회관, 하나스퀘어

#### 국민대

도서관, 경상관, 복악관, 예술관, 종합복지관, 법학관, 공학관, 조형관, 경영관

####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혜당관(학생회관), 인문관, 자연과학관, 버스정류장

#### 대구대

경상관, 학생회관 1층, 학생회관 2층, 도서관

#### 덕성여대

도서관, 학생회관, 인문대

#### 동국대

학생회관, 상록원, 법대, 사회과학대, 문화관, 혜화관, 정보문화관, 명진관, 원흥관, 학림관, 중앙도서관, 신공학관

#### 동덕여대

학생회관, 대학원, 승인관

#### 동아대(부민)

경영대, 사회과학대

#### 동아대(승학)

인문사회대, 도서관

#### 동의대

국제/상경대, 인문대, 학생회관, 상경대, 도서관

#### 명지대

학생회관 식당 앞, 학생회관 본관 통로, 경상관, 본관

#### 부경대

도서관, 호연관, 인문사회과학대학, 나비센터, 위드센터

#### 부산대

문학회관, 금정회관, 제2도서관, 경영관, 사회관

#### 삼육대

학생회관, 다니엘관, 도서관, 바울관

#### 서강대

하비에르관, 김대건관, 리찌과학관, 다산관, 정하상관, 우정원 1층, 우정원 식당 앞

#### 서울과학기술대

도서관, 학생회관, 제2학생회관

#### 서울대

중앙도서관(62), 학생회관(63), 신앙학술정보관(4), 법과대학(15), SK경영관(58), 포스코스포츠펀터(71-2), 서틀버스 정류장 (본관 앞), 기숙사 식당(901), 제3식당(전망대)(75-1), 신공학관2(302), 신앙학술정보관(44-1), 자연대 대형강의동(28), 자하연 식당(109), 생활과학대학(22), 사법교육협력센터(12), 동원생활관(113)

####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미래관

#### 서울여대

살롬하우스(기숙사), 인문사회대, 50주년 기념관, 학생누리관1, 학생누리관2

####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학생회관, 경영관1, 경영관2, 경제관, 법학관

#### 성균관대(경기)

학생회관, 의관기숙사, 제2공학관, 신관기숙사

#### 성신여대

정문 앞 이디야 커피

#### 세종대

도서관, 학생회관, 충무관, 광개토관, 군자관

#### 숙명여대

도서관, 학생회관, 명신관1, 명신관2, 이과대

#### 송실대

기숙사

#### 아주대

제1학생회관, 팔달관, 다산관, 중앙도서관, 종합관

#### 연세대

대우관 1층, 대우관 지하, 공학원, 과학관, 과학원, 교육과학관, 광복관 1층, 광복관 지하, 중앙도서관, 연희관, 외솔관, 위당관, 학생회관, 제3공학관, 경영관, 삼성관

#### 연세대(국제캠퍼스)

종합관식당(지하), 도서관식당(지하)

#### 영남대

상경대 1층, 상경대 2층,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식당, 학생회관

#### 이화여대

도서관, 학관, 인문관, 학생문화관, 포스코관B1, 교육관A(좌), 교육관A(우), 교육관B

#### 인천대

학산도서관, 학생회관, 복지회관(식당), 복지회관(매점)

#### 전남대

도서관, 1학생회관, 경영대 1호관, 공대 7호관, 자연대 3호관, 사회대, 진리관, 인문대 1호관

#### 전북대

중앙도서관, 1학생회관, 2학생회관, 상대1호관, 공대7호관, 후생관

#### 중앙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서라벌홀, 카페 더블유(기숙사 1층), 법학관, 제2의학관, 한울관, 비마관, 복지관

#### 충남대

1학생회관, 2학생회관, 도서관, 경상관, 백막교양교육관

#### 충북대

도서관, 학생회관, 경영대, 개신문화관, 생활과학대

#### 한국외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국제학사, 인문과학관, 사회과학대학, 사이버관

#### 한국외대(경기)

도서관, 학생회관, 교양관, 어문학관, 인문경상관

#### 한국종합예술학교

본부관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학생회관

#### 한성대

도서관

#### 한양대

지하철역, 백남학술정보관, 인문과학대, 자연과학대, 경제금융대,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 항공대

학생회관, 과학관

#### 홍익대

홍문관 1층, 홍문관 2층, 인문사회A동, 중앙도서관, 와우관,1도서관, 인문사회C동, 4공학관, 문헌관

#### ETC.

광화문 청년희망재단, 남도학숙, 신촌 파고다어학원



## 세상의 모든 자존감 도둑들에게

유현수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참 많다. 글을 읽는 내내 내 친구의 이야기를 보는 줄 알았다. '뭐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이야기임에도 막상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한 번 도둑맞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 같다. 자기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결국 성장할 수 없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노력이나 할 것이지 남의 자존감을 도둑질이나 하고 있으니 말 다 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저런 자존감 도둑을 만날 때면 한없이 약해지게 된다. 내가 잘못했거나 약해질 일이 아닌데... 세상의 모든 자존감 도둑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남의 일에 신경 쓸 시간에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내 자존감 도둑질하지 마!

## 대단한 걸 이루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

홍문영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인내를 말씀하셨다.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 "항상 상냥하게 웃어야지", "배불러도 남기지 말아야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 재미없는 대학 공부도 졸업장을 위해 참고 해냈고, 누군가 기분 상하는 말도 해도 허허 웃어 넘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남들에게는 뭐든 열심히 하는 친구, 성격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스스로의 이중성에 신물이 난 적도 많았다. 어느 날 한 사건이 있었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 하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 한 달 넘게 들러붙어 있던 우울이 민망할 만큼, 결과 하나 없었던 5분간의 싸움이 그간의 체증을 모조리 날려버렸다. 처음으로 참지 않음의 쾌락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이십수 년간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채점표에 맞추어 살아왔으니, 앞으로 이십수 년은 뺄점을 맞아도 평균은 가지 않을까 스스로를 위안해본다. '하기 싫은 것을 참고 해내는 것이' 어른의 기준이라면, 나는 오히려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  
857호  
대학내일



## 빛나는 청춘 같은 건 없더라

유경연

대학교 1학년은 동아리, 2학년은 대외활동, 3학년은 교환학생, 4학년은 인턴 그리고 매 방학마다 해외여행. 이게 평범한 대학 생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보니, 저것들은 매우 평범한 일이었지만 내가 평범하지 못했다. 방 값 내기도 빠듯한 주제에 해외여행, 교환학생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었고 내가 방 안에서 무기력하게 SNS를 뒤적이고 있을 때 평범한 아이들은 곧잘 해외여행을 떠났다. 나는 친구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점점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다가도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거나, 재밌는 영화 한 편을 보거나, 취향 저격하는 노래를 발견하면 반짝 긍정적인 기운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춘은 그런 것 같다. 300일은 흐린 날, 60일은 맑은 날. 무기력과 활력의 반복. 누구나 다 100% 행복할 수는 없고 우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나 자신이 기죽지 말자. 네 청춘만 흐린 게 아니니까.



MUSICAL &lt;노트르담 드 파리&gt;

### 잊지 못할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룸메이트에게 초대권이 생겨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팀의 공연을 보러 가게 된 건 스물다섯쫓의 일이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연이 시작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 어둠던 무대의 막이 오르고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은 유리와 돌 위에 그들의 역사를" 쓴다는 대성당의 시대가 천장까지 울려 퍼질질 때, 누더기를 걸친 무용수들이 온몸으로 무대 위를 채워나갈 때, 팔뚝의 솜털들이 일제히 일어선던 기분. 무대연출을 보며 느꼈던 감탄, 흥분 속에 친구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의 밤공기,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많이 보고 느끼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분까지 모두 남아 있다. 1998년 프랑스 초연 이후 전 세계 20개국에서 총 4000회 이상 공연된 <노트르담 드 파리>가 한국어 버전 공연 10주년을 맞이했다. 무대는 더욱 탄탄해졌고, 초연부터 함께했던 배우 윤희열을 비롯해 차지연, 정동하, 마이클 리, 유지 등이 함께한다. 좋은 공연을 볼 때마다 돈을 쓰러거든 '경험'에 쓰는 것이 좋더라 말을 떠올린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이 공연의 첫 장면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러나 더 많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기를.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을 경험들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기를. 김성지

## Weekly Pick Up

### 자주 만나는 사이

며칠 전 흥대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친구라고 뭉뚱그려 불렀지만, 총 여섯 명으로 구성된 모임은 어쩌다 이렇게 모였나 싶을 정도로 조합이 생뚱맞다. 나이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취향이 찰떡같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편해서 자주 모인다. "야 나 요즘 너희를 제일 자주 만나. 절친 못 본 지는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어? 저도요." "나도" 그날 갔던 맥주집 수염은 우리 관계와 묘하게 닮은 공간이었다. 시골 할머니 집 같은 내부와 버스 정류장이나 있을 법한 낡은 의자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잔에 담아주는 카스 맥주가 안 어울릴 듯 어울려서 처음 기본 곳인데도 단골집처럼 편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했다!) 11시 쯤 가게에서 나와 "다음에 여기 또 오자" 하고 큰 아쉬움 없이 산뜻하게 헤어졌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렇게 서로에게 부담이 없어 자주 만날 수 있구나. 김혜원



PLACE 수염



NETFLIX &lt;굿걸스&gt;

### 약탈한 세상 속 굴즈

"Girls today can be anything." 첫장면 첫 대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 여자는 무엇이든 될 수 있지. 그래서 주인공들은 하나 하나 마트를 타는 강도가 되어버린다...! 누구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 때문에 집을 넘기지 않기 위해, 누구는 전 남편에게 양육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누구는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각자 저마다의 이유로 권총을 챙겨 들고 겁없이 마트에 들이닥친다. 그런데, 어라? 훔친 돈이 예상외로 너무 많다. 3만 달러만 훔쳐서 1만 달러씩 나눠 갖고 깔끔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50만 달러나 털어버렸다. 이때부터 주인공들은 심장을 쫓기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 시작한다. 이들을 응원하게 되는 건 단지 주인공이라서가 아니라, 마트를 털 강도인 그녀들보다 그녀들이 마주한 세상이 훨씬 더 약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참, 시청 시주의 사항이 있다. ※ <오션스8>과 연달아 보면 당장 어디든 털러 가고 싶어지니 조심할 것! 서재경

### 스트레스를 퍼포먼스로 만들면

빼박, 정답! 미친 공연이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 '크레이지 퍼포먼스'라고 불리는 <푸에르타 부르타>가 한국에 온다. '푸에르타 부르타'는 스페인어로 '잔혹한 함'을 뜻하는데, 현대 도시인의 스트레스를 모티프로 했다고. 과연 열정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만든 공연답게 폭발력도, 실험 정신도 미쳤다. 관객은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조명이 낮게 깔린 공간으로 입장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밤심 노노. 객석은 따로 없고, 벽 천장 바닥 모든 '면'이 무대가 된다. 흥이 나는 EDM에 맞춰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지는 수조가 등장하고, 벽에서는 거대한 러닝머신이 튀어 나온다. 잠깐 숨 좀 돌릴까 싶으면 공중에서 떠 있는 막을 타고 배우들이 날아다닌다. 스트레스가 안 가실 수가 없는 진정한 4D! (심지어 입장 전에는 맥주도 판다!) 절대 후회는 없겠지만, 내한 공연 특성상 티켓 가격은 약간 슬퍼진다. 권혜은



PERFORMANCE &lt;푸에르타 부르타&gt; 웨이리다스

## 요즘 내가 듣는 유일한 칭찬 이겼닭! 치킨이닭!

오늘도 게임에 접속하며 우스꽝스러운 말 한마디에 성취감을 얻는다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언어 파괴인가 싶겠지만, 만바다 외딴섬 전투가 벌어지는 너른 들판 위, 최후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칭찬이다. 쏟아지는 화염과 끊임없이 들리는 총성,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적들의 발소리.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극한의 공포 오직 담대한 용기와 노력 그리고 신의 가호만이 이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 이것을 넘은 최후의 승리자에게는 “이겼닭! 치킨이닭!”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칭찬이 주어진다. “이겼닭! 치킨이닭!”은 요즘 수많은 불합격과 거절을 마주하고 있는 내게 주어진 유일한 축하이기도 하다.

배틀 그라운드에는 100명의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라운드에서 떨어지면서 시작되는 게임이다. 모두가 똑같은 공정한 출발이다. 공정한 게임 세상에서 나는 원하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공정한 게임 속에서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고, 용감하게 적과 맞서 싸우며 정직한 승리를 쟁취한다. 현실 속 나는 연거푸 채용에 탈락하는 취업생에 어두운 밤길을 두려워하며 공중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 가는 어린 여자이지만, 게임 속 나는 적들을 용감히 물리치며 정직한 승리를 거두는 용맹한 전사다.

물론 게임에도 아이템 같은 윤이 작용하며, '과금'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승리 요건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러나 게임의 규칙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자발적 규칙이다. 자발적으로 성립된 규칙 안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할 성취는 대체로 공정하다. 비자발적인 규칙 속 수많은 부조리와 억압, 불합리의 가시발길을 걸어야 하는 게임 밖 세상의 성취와 다르다. 쏟아져 나오는 채용 비리와 입시 비리, 재벌 3세의 갑질 같은 부조리가 게임 세상에는 없다. 그동안 학교와 사회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성공 신화를 가르치며,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이 건설한 사회의 경쟁 체제를 내면화시킬 줄 몰랐다. 우리는 어른의 말을 듣고, 내게 주어진 상황과 차이를 극복 가능한

WRITER 안유리 joint93@naver.com

수십 번 쓴 자소설 만큼이나 지금의 자기소개가 어려운 배린이



것이라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다. 그러나 졸업 후 사회로 내던져진 우리가 목도한 실제 세상은 몹시 다르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취업난과 고공 행진하는 집값, 내 한 몸 편히 누일 곳 없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 뿐. 화려한 야경 아래 저 멀리 내 앞을 달려나가는, 체제의 선택을 받은 '금수저' 자제만 도시의 불빛처럼 아른거린다.

또한, 게임은 실패해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설령 게임에서 죽는다 해도, 이어서 다른 게임을 시작하면 된다. 게임에서의 실패는 또 다른 기회다. 반면에 게임 밖 세상은 수많은 실패자를 양산할 뿐, 그들에게 쉽사리 기회를 주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부재하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집과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 실직 후 조그마한 '치킨집'이라도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꿈꿀 수 있다.

게임 스트리머 '대도서관'은 한 게임 중독 토크회에서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학교교육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오직 게임 속 세상에서만 행복감을 느끼는 건 10대 뿐만이 아니다. 88만원 세대로 대표되는 청년 세대도 끊임없는 좌절을 주는 현실 대신 게임 속에서 성취감과 행복을 얻는다.

월요일 아침 9시.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시간에도 우리 동네 PC방에는 늘 사람이 넘친다. 그들 대부분이 내 또래의 청년들이다. 한때는 현실을 뒤로하고 게임 속 세상에 몰두하는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봤었다. 그러나 끝없는 좌절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요즘, 나는 이제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지친 하루를 달래기 위해 게임에 접속하며, "이겼닭! 치킨이닭!"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말 한마디에 성취감을 얻는다.



# 소심이의 소심한 생활

모든 사람이 언젠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이거 하나뿐이다' 라는 생각이 환기되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어? 뼈 맞았다..!

좋아하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대상을 그만 두게 된다.

또 떨어지다니. 나는 쓰레기야.

이것도 못하면 죽어야지. 그냥 포기하자.

"좋아하는 거지만 이거 없어도 죽는 건 아니야" 정도의 스텐스를 가지고 살고 싶다.

일단 치킨부터 먹고 생각하자.

# 세상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가끔 친구들에게 “다음 생엔 뭘로 태어나고 싶냐?”고 묻는다. 답변에는 무생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는데, 의외로 돌로 태어나겠다는 애들이 꽤 많다. 돌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싶다고, 작달비가 내리든 함박눈이 쌓이든 상관 않은 채 맘 편히 있겠다고 사뭇 진지하게 말하던 친구도 있었다. 그런 친구를 위로하기가 어쩐지 낯간지러워서, 괜히 알맞은 장난을 쳤던 게 어렴풋이 기억난다. “딱이나 편하게 있겠다. 너나 나 같은 사람은 돌로 태어나봤자 흔들바위일걸? 흔들바위 알지? 365일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하루 종일 밀어대는 그거.”

농담처럼 말했지만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 또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해질까?’다. 사소한 일에도 일희일비하며 바깥 세계의 속도에 맞춰 휘청거리는 게 이제 좀 지겹다. 누가 부귀영화(혹은 연금복권)와 마음의 평화 중 택 할 거냐고 묻는다면, 지금 갈아선 대담 마음의 평화를 골라버릴지도 모르겠다. 정신승리라도 좋으니 스트레스 없이 지내고 싶다. 어떤 근육이든 심하게 쓰면 망가진다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폭염과 한파를 오가는 내 마음은 이미 너털너털해져 있을 게 분명하잖아. 당장 내일 고장 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런 연유로 죄 없는 마음에 돌을 던지는 농담을 골라내 단두대(1)에 올리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최근에 유력한 용의자로 ‘제발’이라는 놀이 체포됐다. 한번 의식하고 나니 내가 꽤나 자주 ‘제발’을 찾는 사람이란 사실도 알게 됐다. ‘제발’을 말할 때의 나는 대체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간절히 바라왔던 것이 코앞까지 가까워졌는데, 그걸 손에 넣을 능력이 없고 내세울 거라곤 간절함뿐이어서 구차하게 매달려야 하는 초라한 처지. 그래서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신이나 달님을 찾으며 ‘제발’을 외치는 거다. ‘제발, 이번엔 꼭 불게 해주세요. 이거 안 되면 저 죽어요.’ ‘제발 그 사람 한 번만 더 만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진짜 착하게 살게요.’

제 3자의 눈으로 가만 보니 나는 매사에 지나치게 필사적인 경향이 있었다. 그건 아마도 내가 인생을 구원해줄 한 방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녹누한 일상을 단번에 뽕송하게 만들어줄 헛살 같은 사랑이나, B급 인간을 A급으로 만들어줄 성취 같은 게 있다고 믿었으니까. 절박해질 수밖에 없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도 이 기회가 그 한 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새 ‘이거

## 마음을 훌가분하게 해주는 주문

“이거? 좋아하는 거지만 없어도 죽는 건 아니야

아니면 안 돼’의 심정이 돼버렸다. 어떤 것도 어떤 것에게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취직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진 않는다는 걸. 무엇보다 일단 지나고 나면 생각보다 금방 잊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내내 모르고 지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흐릿하지만 글 쓰는 일에 집착하게 된 과정도 비슷했을 테다. 어쩌다 한 번 칭찬을 들은 일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닿기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로 거창한 이유가 있었을 리 없다. 그런데도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납작한 관점은 수시로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글이 잘 써지지 않으면 극단적인 생각(또 떨어지다니. 나는 쓰레기야. 이것도 못 할거면 그냥 죽자)을 했다. 잘 하고 싶어서.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어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차라리 도망치고 싶기도 했다. 너무 간절해서 영영 놓아버릴 위기에 처했던 때, 그러니까 잡지사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구석에 처박힌 일이 나, 기사 몇 개가 망했다고 에디터 일을 때려치우려고 했던 걸 떠올리면... 지났으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참 바보 같았다.

언젠가 네이버 뉴스 창에서 “김태리, 저도 언제 연기를 때려치울지 몰라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 놀라본 적이 있다. 알고 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이거 하나뿐이다’라는 생각이 환기되지 않으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도 연기를 언제 때려치울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다면 인터뷰를 보고 그녀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실패 후 도망칠 곳이 있는 사람은 가짜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태도를 배우고 싶다. 앞으로는 “이거? 좋아하는 거지만 없어도 죽는 건 아니야” 정도의 온도로 살아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정말로 고장이 날지도 모르니까. 잘 하고 싶은 것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이제 그만 ‘제발’을 놔주어야지.



## #땡넬대숲 #무책임의\_끝 #프로대총러

땡넬대숲 열일곱 번째 사연은 매사에 설렁설렁 임하는 동기 때문에, 두 배로 책임을 떠안고 매 학기를 보내는 Q가 제보해주었다. 너무 무책임해서 경악하게 되는 만행 7가지. 유난히 덜렁거리고, 성실함은 남 일 같은 사람들 주목!

**EDITOR** 원더우먼 wonderwomen@univ.me “열 받는 사연 제보 환영  
**INFORMER** 무엇이든 설렁설렁하는 친구를 이제는 설렁설렁 보고 싶은 Q

# 01

## 10시에 일어나 10시 수업 대출을 부탁한다

“제 동기는 저희 과 명물이에요. 하도 학교를 설렁설렁 다녀서, 청강생이라 알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교양 수업이야 그렇다 쳐도, 지각하면 무조건 C+인 전공 필수 시간에도 안 와요. 그렇게 게으르면서 성적은 잘 받고 싶은가 봐요. 학기 내내 대출해달라고 카톡으로 들들 부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의리로 해줬는데, 이젠 눈치가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저 친구 대체 고등학교는 어떻게 졸업한 건지 좀 의문.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는 내신에서 출결을 안 보나? 그때는 억지로 참은 거라면 인정. 게으르는데다 무임승차하는 본성까지 참은 제보자의 인내심 인정.



“

제 동기는 저희 과 명물이에요. 하도 학교를 설렁설렁 다녀서요. 게으르면서도 성적은 챙기죠. 아침 10시 전공 필수 수업이 있는 날마다, 대출을 부탁한다는 카톡을 보내요 ”

# 04

## 팀플 발표 날 학교에 안 온다

“악명이 워낙 높다 보니, 공부나 팀플 관련해서 그 친구와 엮이고 싶어 하는 애들이 없어요. 저도 강제로 조를 짜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함께하게 되었죠. 의외로 초반에는 열심히 참여하더라고요. 아이디어도 내고, 다른 조원이 낸 의견에 반박도 하고, 팀플을 주도하기에 무임승차는 안 하나 싶었는데, 조원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발표 당일, 아예 학교에 안 왔습니다. 발표일을 까먹고 잤대요.(한숨) 물론 다들 학점은 망했구요. 소름 돋는 건 개는 이게 재수강이더라고요.” 망할 거면 혼자 망해라. 재수강하건, 삼수강하건 본인 등록금 까먹는 거니 무슨 상관이겠느냐만. 본인이 주도한 발표 일자를 까먹을 정도의 정신 상태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팀플 없는 수업 수강을 권한다.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놓고, 남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것?



# 05

## 실수로 남의 물건을 가져왔어도 안 돌려준다

“정도가 심하긴 하지만, 놀 때는 재밌는 친구예요. 하루는 다 같이 동기 중 한 명이 일하는 학교 앞 24시간 카페에서 수다 떨고 있었죠. 근데 알바하던 동기가 울상이 되어서 테이블로 오더라고요. 손님이 실수로 진동벨을 가져간 것 같다고. 개당 최소 4만원 이상이러 잃어버리면 알바비에서 까인대요. 그때 문제의 친구가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다음 날 알바하는 동기에게 소핑백 하나를 가져다 줬는데, 그 카페 진동벨이 가득 들어 있었다고...”

동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욕하기는 무슨, 무서워... 그 많은 진동벨 뭐야. 덜렁거리다 실수로 남의 물건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랬으면 돌려주는 게 올바른 책임 의식 아닙니까? 저 정도로 많이 모을 때 까지 무슨 생각으로 방치한 건지... 설렁설렁도 정도껏 해라.



## 02

## 수업 시간에 교재를 깜빡한다

“자라리 아웃사이더로 지내면 본인 몸이라도 편할 텐데. 본인도 미안 하기는 한지 자꾸 뭘 하겠대요. 한 번은 교수님이 자체 제작한 강의록 인쇄물로 수업하는 과목이 있었는데, 분량이 많아서 반 애들끼리 아예 제본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오겠다 하더라고요. 미심쩍었지만 뭐라도 하려는 게 기특해서 맡겼더니. 역시 내 강의록을 프린트해서 제본소에 갖다 주는 것 자체를 깜빡해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허공만 보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너무 모르는 것도 죄다. 기억력과 행동력은 전부 대중 대중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추진력만 살아 있는 느낌. 무언가를 추진할 생각 자체를 버리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시작해봤자 얼마 안 가서 무책임하게 놔버릴 거잖아.



## 03

## 공금이 들어 있는 지갑을 분실한다

“다들 화가 잔뜩 났죠. 그 친구는 너무 미안해하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하더라고요. 안됐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그날 몇몇이 학교 앞 제본소까지 따라갔죠. 프린트도 완벽하게 가져갔고, 반 인원수대로 진행하려는데. 어이없게 공금이 들어 있는 지갑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다들 사색이 되어서 일단 있는 돈을 다 긁어모았어요. 나중에 갚긴 했지만. 이후로도 맨날 뭘 잃어버려서, 전 개네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본성 자체가 나쁜 사람이 아니니 짠하긴 하다만. 덜렁대는 게 천성이더라도, 남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지 모른단 자각이라도 해라. 매번 용돈 주시는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가족이나 ‘팅장’이라 딱딱한 대학 생활, 봉변당할 뻔했던 동기들은 무슨 죄야.



## 06

## 해외여행 갈 때도 새는 바가지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2박 3일 중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과에서 한 명이 총대를 메고 신청자를 받았는데 역시 그 동기도 빠지지 않았죠. 모두가 단독에서 한 마음으로, ‘00이 여권 챙겼니?’ x 1000을 외쳤어요. 제일 늦어서 일행들을 전부 기다리게는 했지만, 여권은 잘 챙겼더라고요. 다들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고 감탄하려는데... 비자 신청을 안 해서 망한 거죠. 총대가 한 달 전부터 공지를 그렇게 했는데, 왜 공지를 퍼보지조차 않은 걸까요?”

다들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다 몸에서 사리 생길 지경이겠다. 미취학 아동도 아닌데 A to Z까지 챙겨야 하는 업보라니. 이건 카톡을 연다-단톡방에 들어간다-공지를 확인한다-지금까지 대화를 정독한다-수준이잖아. 알려진 대로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함정.

## 07

## 이런 짓을 매 학기 반복한다

“그 날 일은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총대가 정말 마음씨 좋은 친구인데, 정색하는 걸 난생처음 봤어요. 한국에 혼자 남아서 반성할 것 처럼 보였는데. 그러면 뭘 하나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다가 공항버스에 캐리어 두고 내렸다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크게 걱정 안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은 방학 중이라 만나지 않지만, 다음 학기에 또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스트레스입니다.”

이야기를 전부 들은 후 한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당사자는 정말 큰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년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챙겨줄 거란 무의식적인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2학기에는 모두의 스트레스 저하를 위해,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었다.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univ.me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과 얼굴 사진을

비롯해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어떤 일을 하는지?**

①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② 짧은 인터뷰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20

대학내일



Find Cover Model

# 인생 미술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서울에 있는 유명 미술관에 간다 → 작품 대신 바글거리는 인파를 배경으로 인증샷 찍다가 포기한다 → 지쳐서 집으로 돌아온다...  
 우리의 미술관 나들이는 대부분 이렇게 세드 엔딩으로 끝나고 만다. 근데 그거 아니? 산 살짝 넘고 바다 잠깐 건너면 탁 트인 자연을 배경으로  
 인생샷 100장 남길 수 있는 곳부터, 그림보다 더 그림 같은 건축물을 자랑하는 곳까지 매력 넘치는 미술관들이 많다는 걸! 올여름, 여행 갈 때  
 잠깐 들르는 거 말고 목적지로 찍고 가도 좋을 만한 미술관들을 소개한다. 인생 미술관이 되어줄 곳들로 '미캉스' 한번 떠나볼까?



© 사진제공 구하우스

## —

# 경기도 양평 구하우스



**관람 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화~금요일 10:30~17:00 / 토, 일 및 공휴일  
10:30~18:00

**관람료** 1인 15000원 (음료 포함)

**대중교통** 경의중앙선 양수역 하차 ▶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8-2, 8-3, 8-4, 8-5, 8-7, 8-8, 8-9  
환승 ▶ 서종파출소 하차 ▶ GS25 건너편 부동산과  
카페 사이 골목으로 100m 직진

**문의** 031-774-7460

## 예술가의 집에 초대받은 기분

불구경, 싸움 구경이 최고로 재미있었지만 모르는 말씀이다. 알고 보면 남의 집 구경만큼 재밌는 게 없다. 어릴 적 생일파티에 초대되어 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 다들 있겠지? 우리 집엔 없는 낯선 매력에 이곳저곳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경험도 책장에 꽂혀있는 책,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 하나라도 친구에 대해 어렵게 이 가능해볼 수 있었다.

2016년 문을 연 양평의 구하우스는 말하자면 '예술가의 집'과 같은 미술관이다. 생김새부터 일반적인 미술관과는 조금 다르다. 2014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조민석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었는데 그만큼 흔히 볼 수 있는 네모반듯한 평범한 미술관은 아니다. 반짝이는 벽돌들로 둘러싸인 건물에 입장하면 거실, 서재, 라운지 등 총 10개로 나뉜 '생활공간'이 등

장한다. 회화·조각·사진·영상 등의 현대미술이 가구나 조명 같은 디자인 작품들과 어우러져 있다는 점만 빼면, 정말로 세련되게 꾸며진 누군가의 집처럼 보인다. 비록 그것이 필립 스타크, 피에르 폴랑, 백남준, 서도호 등 미술 교과서에서 볼 법한 작가들의 작품들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행동이 조심스러워질 테지만?

매년 3~4회, 새로운 기획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구하우스 전시를 봤다고 집에 가기는 아직 이른다. 정원과 루프탑을 오가며, 양평의 깨끗한 공기를 듬뿍 마시고 들꽃의 향기를 느끼며 멀리 보이는 북한산의 정기까지 한 몸매 받을 수 있기 때문.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는 집으로의 초대, 안 같 이유가 무엇?

## 강원도 원주 뮤지엄 산



**관람 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화~일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00)

**관람료** 갤러리권 (박물관+미술관+야외정원 입장) 15,000원  
뮤지엄권 (갤러리권+제임스 터렐 작품 관람) 28,000 원  
\*대학생 학생증 소지 시 20% 할인  
인문학이 있는 제임스 터렐(갤러리권+제임스 터렐 작품 관람+인문학 설명) 35,000원

**대중교통**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원주투어버스(유료) or 오크밸리 셔틀버스(무료) 탑승 ▶ 뮤지엄 산 정류장 하차  
**문의** 033-730-9000

### 맑아도 비가 와도, 모든 날이 좋은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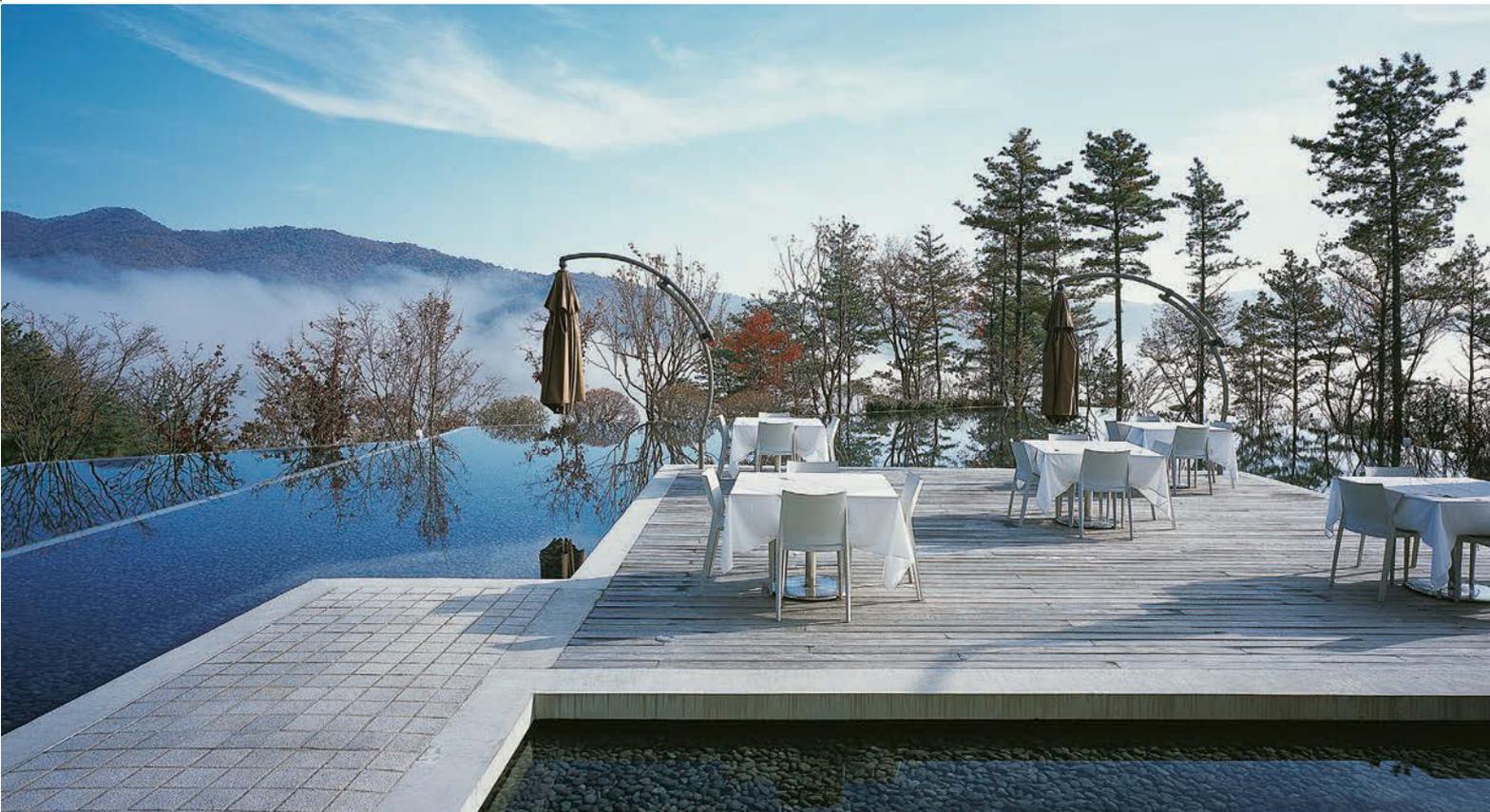
처음 유럽 여행을 갔던 때, 당연히 가야 하는 필수 코스처럼 미술관에 들렀다. 그곳에선 작가의 이름도, 작품의 제목도 생소한 현대미술을 전시하고 있었다.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마지막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 방 안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진 커다란 캔버스가 있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이었다.

뮤지엄 산도 바로 그런 작품이다. 미술이 자연 그리고 건축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해발 275m 산자락에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한 폭의 거대한 풍경화를 만들었는데, '노출 콘트리트'로 지어졌음에도, 자연 경관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 뮤지엄 산의 진가는 햇살이 좋은 날, 700m 길이의 산책로를 걸을 때 드러난다. 웰컴 센터에서부터 꽃, 물, 돌 등 각기 다른 주제의 정원을 지나가기까지, 도시에서 느낄 수 없던 계절의 변화가 훑 끼쳐 온다. 비 오는 날은 어떡하냐고? 사실 산에 안개가 슬쩍 낀 그때가 사색하기엔 더 좋다. 우산은 무료로 빌려주니, 고즈넉한 산이 들려주는 여유를 건네받을 준비만 하고 오면 된다.

산책을 마쳤는데도 아직 '산'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특별 전시 '제임스 터렐' 작품 관람이 남아 있다. 7~8월 동안 매주 토요일 6시부터 7시까지는 제임스 터렐관에서 미술사·심리학·철학 등을 토대로 한 큐레이터의 작품 설명도 함께 들을 수 있다. 모든 전시를 둘러보고 '워터가든' 위 야외 카페 테라스에 안착하면,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몽유도원도' 같은 풍경. 구름에 달 가듯이, 자꾸 '산'에 오르다 보면 속세의 때도 씻겨 나가지 않을까?



© 사진제공 뮤지엄 산



## 경기도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



관람 시간 매주 월·화 휴관  
4.23~8.23 10:00~19:00  
8.24~10.21 10:00~18:00

관람료 5,000원

대중교통 일산 200번 버스 or 합정역 2200번  
버스 승차 ▶ 심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 파주에서 지중해를 느끼고 싶다면

파주 출판 도시. 직접 가보기 전, 단어만 듣고서는 흥미진진한 장소일 것이라 생각했다. 답답한 서울에서 벗어나 만나는 탁 트인 하늘과 싱싱한 잔디... 그 한편에 코엑스 별마당처럼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즐비할 줄 알았지. 처음 마주한 파주 출판 도시에 대한 소감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도시'라고 짧게 줄이겠다. 물론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을 보기 전의 감상일 뿐이지만.

뺨하고 파란 하늘, 초록초록한 잔디, 온통 하얀 건물. 운이 좋으면, 잔디밭에 누듯하게 누워 하루를 보내는 '지중해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곳이었다. 아직 전시는 보기 전이었지만, 미술관이 있는 풍경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이곳은 2010년, 해외 문학을 소개하는 출판사 '열린책들'에서 문을 열었다. 미술관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모방을 뜻하는 '미메시스'에서 따왔다(디자인·미술·건축 서적을 출판하는 자회사의 이름도 같다).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은 국내외 건축가들의 성지로도 유명한데, '건축의 시인'이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설계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공간을 자연에서 가져온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하고, '자연광'으로 전시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지중해의 구름 같기도, 바람 같기도 한 공간에서 미술과 자연과 문학을 만나는 시간. 여름방학, 쉬어 가기에 딱이다. 물론 개강 후인 가을에도 미술관의 키 큰 갈대가 흔들흔들 반길 테지만.





## 강원도 고성 바우지움



**관람 시간** 매주 월요일 휴관  
화~일요일 10:00~18:00 (매표 마감 17:30)

**관람료** 1인 8,000원(커피 포함)

**대중교통**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 수복탑  
정류장에서 대명(한화) 3-1 or 한화(장천) 30-1 or  
대명(장천, 한화) 31-1 or 한화(학사평) 3번 중 탑승  
▶ 원암리 입구 하차 ▶ 도보로 17분 이동

**문의** 033-632-6632

### 바위와 흙과 물과 초록

현대미술은 어렵다. 회화도 어려운데 조각은? 흥미해진다. 애초에 실제로 본 적도 거의 없어서, 조각이라고 하면 일단 '로댕'부터 외치고 보는 것이 우리네의 비루한 현실. 전공자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조각을 보러 선뜻 먼 길을 나서기는 꺼려진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미술관이 있다. 설악산 울산 바위 아래,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조각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바우지움이다.

잠깐, 미술관의 위치, 마을의 이름, 미술관의 이름까지 전부 '돌의 기운'이 강하게 밀려온다고? 물론 느낌 탓만 이 아니다. '바우'는 강원도의 방언으로 바위를 뜻하고, '원암리'는 독특한 바위들이 많은 동네로 유명하니까. 바우지움의 건물들도 돌산처럼 강렬한 분위기를 풍기는 데, 실제로도 대관령 터널 공사에서 나온 돌 파편들을 모아 허름하고 거친 벽을 만들었다. 강남역 '어반하이브'

의 건축가이자, 바우지움의 건축을 맡은 김인철 교수의 의도는 이랬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바위가 돌 틈에 흙을 싣고, 풀씨를 심어 초록을 피울 것이다."

근현대 조각들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낯설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려웠다. 조각을 둘러싼 정원으로 나와 걸었다. 물과 돌과 초록으로 가득한 풍경.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결국 조각, 아니 예술과 친해진다는 건 꽤 간단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충분할 테니까. 바위와 돌, 돌 틈의 이끼, 돌을 깎아 만드는 조각, 조각을 만드는 인간까지. 결국은 모두가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갈 테니까.



© 사진제공 솔거미술관



## 경상북도 경주 솔거미술관



**관람 시간** 매주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00)

**관람료** 성인 1,000원 / 경주시민 50% 할인

**대중교통** 경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 정류장

▶ 10번, 100번, 150번, 700번 승차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정류장 하차 ▶ 도보 10분

이동 or 신경주역 버스 정류장 ▶ 700번 승차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정류장 하차 ▶ 도보 10분 이동

문의 054-740-3990

### 발길 닿는 곳마다 포토존

“사진 없이 오롯이 보고 듣고 느끼겠어!” 당찬 포부를 안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허세와 겉멋(?)의 상징인 인종샷 대신 오감으로만 여행을 즐기면 그 여운이 더 길게 갈까 싶어서. 그러나 사진 한 장 없이 다녀온 여행은 이내 기억 속에서 잊힌 채 “거기가 어땠더라?” 하는 초라한 물음표만을 남겼다.

요즘은 어딜 가든 열심히 사진을 찍는다. 이왕이면 예쁜 배경을 고르고 골라서. 허세나 겉멋이 아닌, 찍어둔 사진을 더 자주 들춰 보고 곱씹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솔거미술관에선 예쁜 배경을 고르는 노력마저 할 필요가 없다. 이쪽으로 셔터를 누르면 SNS 사진 명소로 급부상한 제3전시실의 통창, 일명 ‘움직이는 그림’이, 저쪽으로 셔터를 누르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자연못 ‘아평지가 배경으로 펼쳐지니까. 경주엑스포공원 내에 위치해 있어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도 잘 꾸

며져 있다. 그야말로 발길 닿는 곳마다 포토존이다. 그래도 사진만 찍고 오기 민망하다면, 전시실로 발걸음을 향해보자.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접견실 정면에 걸려있던 수묵화 ‘장백폭포’와 ‘일출봉’을 그린 박대성 화백의 그림을 만나볼 수 있다.

황룡사 담벼락에 소나무를 그렸더니 새들이 진짜 나무인 줄 알고 와서 부딪혀 죽었다는 일화의 주인공, 신라 시대 화가 솔거의 이름을 빌려 만든 솔거미술관. 나무인지 그림인지 헷갈렸다는 그 새들처럼 이곳이 미술관인지 포토존인지 헷갈려 하며 셔터를 누르다 보면 어느새 자꾸 꺼내 보고 싶은 추억이 한 페이지 완성되는 곳이다.

## 대전광역시 이응노 미술관



**관람 시간**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관  
3월~10월 10:00-19:00 / 11월~2월 10:00-18:00

\* 매주 수요일은 21:00 까지

**관람료** 성인(25~64세) 500원

어린이·청소년 300원

**대중교통** 대전역 버스 정류장 ▶ 606 승차 ▶ 한밭 수목원 정류장 하차 ▶ 도보 6분 or 대전 복합터미널 버스 정류장 ▶ 102, 105 승차 ▶ 수정타운아파트 정문 하차 ▶ 606, 911 환승 ▶ 한밭 수목원 정류장 하차 ▶ 도보 6분

**문의** 042-611-9800

### 여름의 선물, 숲속의 작은 미술관

한 동화 작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는 나중에 숲속에 미술관을 짓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차를 타고 한참을 가면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 동화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일본의 모리노우치 미술관처럼, 숲속의 미술관이라니... 낭만적이란 생각이 들어 인터뷰가 끝나고 다이어리에 미술관 이름을 적어두었다.

인터뷰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그 사이 일본에도 다녀왔지만 숲속의 미술관을 찾아가기란 이야기만큼 낭만적이지 못했다. 동화 같은 한 장면을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던 중 이응노 미술관을 만났다. 멀리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대전에서 숲속의 미술관을 만날 수 있었다. 한밭 수목원 내부에 위치해 있어 조금만 걸으면 금방 쪽 뺨은 나무들을 마주할 수 있다. 간결하고 소박한 디자인의 외관은 밖에 펼쳐진 널따란 잔디밭, 조형물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 로랑 보두앵이 남긴 아시아 유일의 건축물이라고 그래서인지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했다. 영화 <부당거래>와 드라마 <그녀는 예뻐다>가 모두 이응노 미술관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이렇게 아름다운데 입장료는 단돈 500원! 어쩐지 '호의가 계속되는' 미술관 같다.

숲속의 미술관이란 점 외에도 이응노 미술관을 찾아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올여름, 프랑스 세르누쉬 박물관과 퐁피두 센터에 있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 30여 점이 국내 최초로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를 관람하고 이응노 화백의 작업실이 위치했던 프랑스 도시 이름을 딴 미술관 내 카페 '프레 생제르베'에서 커피와 마카롱을 즐긴다면 이 여름이 한층 더 낭만적이지 않을까.



## 제주도 서귀포 유민 미술관



관람 시간 매주 화요일 휴관

수~월요일 09:00~18:00

\* 7.20~8.25 09:00~20:00 (매표 마감 19:00)

관람료 성인 12,000원

15인 이상 단체 9,000원

대중교통 제주국제공항 ▶ 111, 112번

승차 ▶ 성산 환승차장 하차 ▶ 택시로  
'휘닉스 제주 리조트'까지 이동 ▶ 오렌지동  
앞 매시간 정각 20분·40분에 출발하는  
셔틀(10:00~17:40까지 운영) 탑승 ▶ 유민  
미술관 하차

문의 064-731-7791

### 그동안 나는 제주를 반만 보았다

제주도에 가면 무조건 자연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에서 쉬이 볼 수 없는 경관을 맘껏 눈에 담고 가자는 생각도 있었지만, 자연이 창조한 예술이 인간이 창조한 예술보다 늘 한 수 위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제주에 차고 넘치는 갤러리, 박물관, 전시장 대신 오름이나 해변, 숲으로 향했던 이유다.

이런 생각은 우연히 방문한 유민 미술관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그곳에서 마주한 인간이 창조한 예술은 자연이 창조한 그것만큼이나 경이로웠으므로 건축 거장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이 미술관 속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제주의 자연을 인위적이지 않게 담아낸 정원이 보인다. 제주에서만 나고 자라는 꽃과 풀들이 꾸밈없이 무심하게 정원을 지키고 있다. 전시관으로 향하는 길목엔 양쪽 벽을 타고 물줄기가 흘러내린다. 벽천 폭포다. 안도 타다오가 제주의 해안선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한 곳이라고. 그곳에서 몇 발짝만 내디디면 돌담 사이 네모나게 뚫린 뷰파인더로 바다 너머 성산 일출봉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순간, 분명 인간이 만든 건축물 속을 돌



아보고 있는 것인데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유민 미술관엔 1890년대 유럽 전역에 일어났던 공예·디자인 운동인 '아르누보'의 유리공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아르누보(새로운 예술)'란 말은 이곳과 썩 잘 어울린다. 자연과 대척점에 있을 것만 같던 인간의 예술을 자연과 어우러진 '새로운 예술'로 탄생시킨 곳이니 말이다. 오디오 가이드를 무료로 빌려주니, 설명과 함께 새로운 예술을 즐겨보자.



## 제주도 서귀포 수풍석 박물관

### 제주의 자연이 주는 전율

제주를 사랑한 예술가는? 가장 먼저 이중섭이 떠오른다. 이제는 제주 민박집 언니로 더 친숙한 이효리가 뒤를 잇는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뮤지션 강아솔의 얼굴도 스친다. 그러나 이들 못지않게 제주를 사랑한 예술가가 있었으니 이타미 준이다. 일본인 아니냐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끊임없이 귀화 제안을 받았지만 끝내 한국 여권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그는 재일 교포다. 게다가 생전에 제주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을 정도로 '제주 바보'였다고.

이타미 준은 제주에 '방주 교회', '포도 호텔' 등 여러 개의 건축물을 남겼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수풍석 박물관이다. 제주의 자연을 상징하는 물, 바람, 돌을 테마로 지어진 이 미술관은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이 아닌, '명상 공간으로서의 미술관'으로 지어졌다. 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가 되어 하늘의 움직임을 투영해 내는 '수(水) 박물관'부터 좁고 긴 통로를 에워싼 나무판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는 '풍(風) 박물관', 돌처럼 단단한 쇠로 만든 상자처럼 보이는 '석(石) 박물관'까지 모든 공간에서 제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묻어난다. 흔히 '예술 작품'이라 일컫는 회화나 조각 작품은 없지만 물과 바람과 돌을 느끼며 그 어떤 작품을 감상할 때보다도 큰 전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율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풍석 박물관은 타운 하우스 내에 위치해 있어 하루 두 번, 25명씩만 관람이 가능하다. 그만큼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미술관을 즐길 수 있다. 헛걸음하지 말고,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니깐.



© 사진제공 수풍석 박물관



**관람 시간** 6.1~9.15 10:30 16:00 / 9.16~5.31 14:00  
15:30 \* 하루 두 차례 운영, 날씨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관람료** 성인 (주중) 15,000원 / 성인 (주말) 20,000원 \* 홈페이지(<https://www.biopiamuseum.co.kr>)에 예약 신청 후 24시간 내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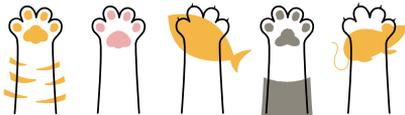
**대중교통** 제주국제공항 정류장(대정, 화순, 일주서로) ▶ 151 승차 ▶ 동광 환승 정류장2 (영어교육도시방면) 정류장 하차 ▶ 동광 육거리 정류장까지 도보 3분 ▶ 752-2 승차 ▶ 상천리 정류장 하차 ▶ 도보 20분(디아넥스 호텔에서 집결 후 함께 이동)



## 고양이가 사람일 수 있다는 증거7

당신이 고양이 집사라면,  
문득문득 '재 사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  
아마 다음 상황들을 보면 확신하게 될 수도...

EDITOR 김풀 hihyo@univ.me ILLUSTRATOR 김아영



### 고양이는 청소를 한다



고양이는 꽤 깔끔한 녀석이다. 그래서 당신이 어질러 놓은 방 안을 보며 결심한다. '내 집을 더럽힌 집사 녀석 대신 청소를 해야겠군.' 바닥 청소를 위해 물을 엷고, 건조대에 널어 놓은 옷을 닦아채 걸레질을 한다. 가끔은 이불 속을 들락거리며 이불 정리를 하기도...



### 고양이는 집사의 말을 모두 알아듣는다



앉아 누워 기다려 라는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해서 고양이가 당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절대 아니다. 철저히 무시하는 거다. 애타게 부를 땐 돌아보지도 않다가 간식 뜯는 소리에 쫓르르 달려오거나 큰 소리로 혼내면 마치 아무 잘못 없다는 듯 눈을 피하는 걸 보면 아무리 봐도 무시하는 거다.



### 고양이는 집사를 한심하게 여긴다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고양이의 시선은 은근하게 당신을 따라다닌다. 관심 없는 척하면서 당신의 행동을 모두 관찰하고 있는 것. 집에서 혼자 춤을 추거나 드라마를 보며 울거나 술에 취해 뽀뽀 세례를 퍼붓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눈빛으로 시그널을 보낸다. '아, 저 한심한 인간...'



## 고양이는 요리를 한다



당신이 요리를 할 때 고양이가 뻥히 쳐다본다고?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도 집사가 좋아서도 아니다. 나중에 직접 요리를 하려고 지켜보는 것. 몇몇 고양이는 혼자 요리하기를 좋아하는데, 가끔 인덕션을 켜다가 집사에게 들켜 제지당하곤 한다. \*위 행동은 매우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함.



## 고양이는 스스로 간식을 먹을 수 있다



고양이는 당신보다 더 집 안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 특히 간식과 사료의 위치는 정확히! 귀찮아서 집사가 갔다 바칠 때까지 가만히 있을 뿐. 가끔 너무나 무렵 간식이 당기면 높은 찬장이나 구석진 곳에 있는 간식을 꺼내 먹곤 한다. 손수 츄르 껍질을 까서 쪽쪽 짜 먹기까지 한다.



## 고양이는 애정 행각을 보면 눈치껏 사라진다



집에 놀러 온 집사의 애인. 고양이는 자신의 집에 타인이 온 게 썩 맘에 들진 않지만 집사가 좋아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준다. 특히 두 사람이 찰싹 달라붙어 애정 행각을 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마치 '나는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듯. 물론 오히려 둘 사이에서 방해하는 녀석들도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낭바냥.



## 고양이는 복수를 한다



집사가 큰 소리를 내지르거나 위협을 가했을 때, 고양이는 잔뜩 화가 나서 앙칼지게 돌아선다. 구석에서 마음을 진정시키지만 어째 분이 풀리지 않는다. 건방진 집사 녀석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집사가 평소 아끼는 옷이나 가방 등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 위에 토를 하거나 스크래치를 하며 복수 성공. 가끔은 눈을 뻥히 바라보며 집사가 아끼는 컵을 테이블 밖으로 밀어버리기도 한다.

# SHOWME THE 해외봉사

## 해외 봉사가면 생길 일

많은 대학생들이 버킷리스트로 '해외 봉사가기'를 꼽는다. 얼핏 생각하기에 여러모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버킷리스트가 그렇듯, 실행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 지금 여기도 '모집 공고 뜰 때마다 자장은 해놨지만, 쓸까 말까 고민하다 번번이 기회를 놓친 사람'이 태반일 거다.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 해외 봉사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먼저 다녀온 선배들의 솔직한 후기를 모아 정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각보다 짝세고, 짝센 만큼 감동적이다.

학생 에디터 권용범 ksi9152@gmail.com DIRECTOR 김혜원 ILLUSTRATOR 김은미



### 04

#### 해외 봉사=해외여행? 절대 L L

간혹 해외 봉사와 해외여행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호하게 말하지만 두 가지는 장소가 해외라는 것 빼고 비슷한 점이 1도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봉사 단원의 하루를 보여주자면...

오전 6시에 기상해 준비를 마친 뒤, 아침 8시부터 오전 봉사를 시작한다. 이 시간에는 주로 건축 봉사를 하는데, 맹벌 아래서 땅 파고 벽돌 나르는 강도 높은 신체 활동이라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다. 식사 후에는 오후 봉사를 진행하고, 활동이 끝나면 조별로 모여서 오늘 봉사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고 (학학) 마지막으로 내일 일정을 점검한다. 이 모든 것을 완료해야 비로소 긴 하루가 끝난다. 여행처럼 느껴지는 짧은 순간을 굳이 찾자면, 현지에 있는 기업체를 견학하는 것 정도? 혹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어지는 자유 시간 하루 이틀 정도가 그나마 숨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란단.

#### TIP. 해외 봉사를 만만하게 보지 말자!

솔직히 해외 봉사를 단순 해외 경험 or 스펙으로 생각하고 참가하는 사람도 많다. 하드코어한 준비 과정을 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며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낙오자가 생기면 함께한 팀원들, 주최 측, 현지 사람, 모두가 곤란해진다.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원 전에 '내가 정말 낯선 타국에서 남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 경쟁률 20:1 과연 나 따위가 뽑힐 수 있을까?



### 01

#### 김내일 경쟁률 20:1이요? 나 따위가 뽑힐 수 있을까요?

요즘은 해외 봉사 한 번 가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혜택이 좋은 프로그램일수록(ex.경비 전액 지원) 지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린다. 오죽하면 '재수는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하지만 꼭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프로그램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잘 찾아보면 다양한 단체에서 해외 봉사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단체마다 봉사 기간 및 방문 국가, 봉사 방법이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해외 봉사를 택하면 된다.

최근에는 교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학교도 많다. 경험자들에게 의하면, 기업체 해외 봉사보다 경쟁률도 낮을뿐더러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노력볼 만하다고. 작년에 교내 프로그램으로 라오스에 다녀온 N양은 "교외 활동보다 준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낯선 곳이라 무서울 수도 있었는데 학교 지인들과 같이 가니까 안심돼서 좋았다"며 강력 추천했다.

#### TIP. 협동적인 사람임을 어필하자

해외 봉사는 단체 활동이다. 두루두루 잘 어울리고, 여럿이 모였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실제로 면접에서도 팀워크에 관한 질문을 자주 묻는다. 본인이 팀에서 어떤 캐릭터를 맡아 역할을 수행할 건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확인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 05

#### 나도 아이돌! in 현지 마을 잔치

해외 봉사 하면 빠질 수 없는 에피소드가 공연(=문화 교류 활동)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출국하기 1~2달 전부터 현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공연 준비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다. 심지어는 해외 봉사 기간에도 일과가 끝나면 숙소에 모여 연습을 한다. 공연 내용은 주로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케이팝 댄스와 태권도 시연이다. 지난해 해외 봉사를 다녀온 A양 팀에서는 트와이스의 'TT', 아이오아이의 '너무너무너무' 등을 준비했는데, 자신을 비롯한 몸치 단원들의 활약(?) 덕에 연습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았단다.

마을 잔치에서 우리만 공연하는 건 아니고, 보답으로 현지인들이 전통 춤을 보여준다. H양은 이 공연을 가리켜 "음악은 만국 공통어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체험이었다"며 해외 봉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았다.

#### TIP. 춤을 전혀 못 춰도 상관없다

나는 춤을 못 추니 해외 봉사는 못 가겠다ㅠㅠ는 쓸데없는 걱정은 내려놓자. 춤은 문화를 전하는 수단일 뿐이다. 보통 각 팀에서 춤선출왕(?)을 맡은 이가 나머지 팀원들을 잘 이끌어 준다. 그리고 아차피 여러 명이 우르르 무대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보지도 않는다. 하하.



출발하기도 전에  
느껴지는  
빡센 기운

02

해외봉사단에 선발되면 사전 교육을 받는다. 보통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엔티를 기대하고 간다면 크게 실망할 거다. 사전 교육은 문자 그대로 레알 참교육을 하는 시간일 뿐... 자정까지 계속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후 쓰러져 잠들기 바쁘다. 안전과 위생 교육, 해당 국가의 문화와 현지어 등을 배우는 교육 초반부는 그나마 할 만하다. 현지에 가서 어떤 봉사를 할지 팀별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진짜 지옥(?) 같다. 주최 측에서는 가이드만 제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은 A to Z 봉사단원끼리 구상해야 한다. 팀플은 참고할 교재라도 있지. 봉사도 처음, 해외 경험도 처음인 애들끼리 모여 있으니, 사공 많은 배가 산도 아니고 우주로 가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규모가 큰 프로그램의 경우, 단원들이 가진 재능에 따라 다른 미션이 주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연에 능한 사람은 현지 사람들에게 선보일 공연(케이팝 댄스, 태권도 등)을 기획하고, 나머지 단원들을 트레이닝(?)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TIP. 아이들과 빨리 친해지지 못한다고 조급해하지 말자**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시간은 사랑이다. 따르다. 어찌 됐건 봉사 기간 내내 매일 얼굴을 보며 지내기 때문에, 진심을 전할 기회는 충분하다.

처음 도착했을 땐, 다들 말도 잘 안 통하는 애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막막해한다. 하지만 언어가 달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정이 들어 있다. 의외로 아이들이 단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경우도 많다.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거나, 마을 잔치에 함께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날엔 그야말로 눈물 파티가 벌어진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도,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만 쌓인 미안함과 고마움이 밀려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해단식 때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져서 건물 뒤로 도망치듯이 달려가야. 근데 2주 내내 틱틱거리기만 했던 장난꾸러기 남자가 따라오더니, 토닥여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진짜 감동받았어. 거기다 영어로 'Don't Go' 라고 말하는데 눈물이 멈추긴커녕 폭포처럼 터져 나오더라. 서로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

정들자마자  
이별, 눈물의  
마지막 날



06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  
=언어의 장벽



언어의 장벽

03

**TIP. 팀원 간 불화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자**  
봉사 준비가 상당히 빡세기(?) 때문에, 사소한 의견 차이가 돌이킬 수 없는 불화로 발전하기 쉽다. 모든 단체 활동이 그렇겠지만, 해외 봉사 같은 경우 타국에서 꽤 긴 시간을 함께해야 하니, 얼굴 붉힐 일이 생기면 서로 곤란해진다. 뻘한 말이지만 생각의 차이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단원들끼리 단합된 상태로 출국할 수 있다.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다. 그러나 잘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품고, 현지에 도착한 단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 뽀사 말이 통하지 않는데 언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지역인 경우가 많아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럼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느냐. 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대학생이 봉사 기간 내내 함께하며 통역을 도와준다. 다만 소규모 단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따로 통역 팀이 없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 정도는 단원들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한다. 모교 주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H양은, 현지 아이들에게 팝송을 알려주는 교육을 기획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려워 몹시 당황했다고. "교육 봉사를 할 때는 의사소통이 힘들드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어. 차라리 몸 쓰는 현장 봉사가 체력적으로 힘들긴 해도 마음은 편하더라고."

**TIP. 현지어 공부는 필수!**  
본인의 영어 실력을 믿고 현지어 공부를 등한시했다간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설령 통역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회화는 숙지해 가는 게 좋다.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더 신속하게 가까워질 수 있다.



"봉사는 나를 위해 남을 돕는 일이라는 말이 있다. 해외 봉사를 다녀온 이들에게 어렸다고 물어보면 다들 아이들에게 해준 것보다, 언어는 게 많다고 이야기한다.

열악한 현지 환경을 몸소 겪은 단원들은, 그간 본인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냈는지를 절실히 깨닫는다. 현지 아이들은 찌는 듯이 더운 날씨에, 매일 똑같은 옷과 맨발로 생활하면서도 밝게 지낸다.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매 순간 감사할 줄 모른 채 살고 있었음을 실감한다고. 열 명이 넘는 해외 봉사 경험자들의 활동 후기를 정리하면서 든 생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뜬금없지만 "No pain no gain"이다.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될 만큼 힘들지만, 인생에 다시없을 귀중한 경험이 생기는 활동. 할까 말까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도전해보시라 권하고 싶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PS

# 생각이 많아 피곤한 사람을 위한 5가지 처방

내가 생각해도 나는 생각이 너무 많다. 작은 일에도 큰일이 난 것처럼 오버하고, 남과 대화할 때도 온갖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말한다. 좋게 말하면 세심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매사에 피곤하게 굴어 스스로에게 미안할 지경이다. 할 수만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싶은데, 다들 알다시피 생각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막막하기만 하다. 바꿀 수가 없으니 주어진 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생각이 많아 고민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연을 모아, 윤대현 정신의학과 교수에게 대처법을 물었다.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ADVISER 윤대현(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교수) ASSIST 최지석 ILLUSTRATOR 몽미꾸

Q1



**주변 사람이 평소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저한테 화난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만나면 눈치를 보게 돼요. 무리한 부탁을 받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찢찢매는 제가 바보 같아요.**

▶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관계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커요. 그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욕구와 현실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상대방도 날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지 않는 건 내 잘못도 상대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합이 안 좋은 거죠. 목표를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데에 두면 관계에 예민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 수 없는 목표니까요. 에스맨으로 살아가는 데 답답함을 느꼈다면, 거절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보는 게 좋아요. 거절은 상대방에게 No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소통이에요. 소통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관계도 성숙해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온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인 거고요.

Q2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교 다니는 것도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버거워요. 객관적으로 보면 크게 어려운 상황도 아닌데 왜 저만 이렇게 유난인 걸까요? 앞으로 더 힘든 일도 많을 텐데...**

▶ 우리 마음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주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않죠. 같은 상황이라도 더 괴롭고 덜 괴로운 사람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연 주신 분은 섬세하신 분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남들보다 삶의 통증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인 거죠. 섬세한 사람에게 하자가 있고 자존감이 낮다는 프레임을 씌우면 안 돼요. 섬세한 게 약한 게 아니에요. 고통을 많이 느끼는 데도 남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 자체가 강한 대단한 거예요.



Q3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신경 쓰여요. 그래서 강박적으로 SNS에 행복한 모습을 전시하려고 해요. 사실 요즘 기분이 좋지 않은데도 매일 SNS엔 즐거운 사진만 올려놓죠. 1분에 한 번씩 새로 고침을 누르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때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 나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남들이 애정하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SNS는 효율적인 수단이죠. 다만, SNS를 통해 만든 가상의 정체성과 본래의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실체가 아닌 만들어진 모습을 통해 사랑을 받다 보면 공허해질 수 있어요. 좋아요는 많이 받았어도 그건 내가 아니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내 약점을 안아주었을 때 완벽하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근데 좋은 모습만 보이려다 보니 관계가 업무처럼 느껴지고 외로운 거예요.



Q4

지적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소한 지적을 받아도 하루 종일 그 생각만 나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걸까요? 자존감을 높이면 괜찮아질까요?

▶ 지적을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 약간의 훈련을 해두면 좋아요. 사실 지적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보거든요. 내가 맞춤법을 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걸 물렸다고 해서 내 존재가 부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쉽진 않지만 지적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자체만 습득하고 그것이 감정 반응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끊어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적 받은 내용과 지적 받은 사람인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틀렸다고 해서 나의 존재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엄밀히 말해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자존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Q5

남과 저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 해내면 부럽고,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솔직히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질투심이 더 커요. 제가 나쁜 걸까요?

▶ 비교, 질투, 경쟁심은 병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능이에요. 하지만 생존을 잘 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본능에 따라 남들과 경쟁해가며 악착같이 살아남았는데, 정작 행복하진 않을 수 있어요. 생존과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질투심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라면, 한 번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언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을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 경쟁적이지 않은 목표가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세계 최고의 정신과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끊임없이 경쟁해야겠죠. 반면에 목표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세웠다면? 얼핏 하찮은 것 같지만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 방학이라 여행 가니? 이거 읽고 가 내 인생 최악의 여행

학생 에디터 김은지 dmswl90112@naver.com



모든 거리에  
취두부향이 날 줄이야! .....

## 나에게 피부염을 선사하신 외국 물

● Where  
멕시코

때는 크리스마스이브. 이번 크리스마스를 인생 크리스마스로 만들고 말겠어! 여행지에서 맞는 크리스마스인 만큼 약간 흥분한 상태로 기대를 했다. 멕시코에서 최고 핫하다는 클럽에 보증금을 넣어두면서까지 자리를 짬해놓았다. 다음 날, 곧 있을 최고의 크리스마스 파티를 꿈꾸며 바닷가에 뛰어들었다. 햇빛이 뜨거워서 선크림도 듬뿍 발랐다. 물에서 놀다 얼굴을 비비고, 다시 선크림을 바르고 또 물에 들어가고... 신나게 놀고 행복하게 잠이 들었다. 대망의 파티 날 아침 거울 속 나는... 누구시죠?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눈과 코와 입술 모두가 통통 부어 흥축한 꼴이 되어 있었다. 클럽은 무슨,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모자를 꼭 눌러쓰고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며 어느 때보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완성시켰다. 평소 순한 화장품만 골라 쓰는 예민한 내 피부를 간과한 벌이었나보다. 어쩌서 내 피부가 찌디찌 바닷물과 강한 자외선에도 끄떡없을 거라고 믿었을까. 피부가 민감한 편이라면 특히 해외에서는 물 조심, 자외선 조심! 서연아



## 70만원짜리 신라면을 먹고 싶다면

● Where  
대만

동기들과의 첫 여행, 대만을 선택한 이유는 티켓이 싼기 때문이다. 7월은 대만의 우기라서 가도 될까 고민되었지만 동기들과 함께라면! 재밌을 거라 생각했다. 엄청난 착각이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를 덮치던 그 습기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 후덥지근한 공기를 뚫고 시내로 나가자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게 바로 취두부구나. 인터넷에서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나는 취두부를 파는 곳에 가지 않으면 괜찮겠거니 했다. 그런데 모든 길거리에서 취두부를 팔 줄이야...! 사람도 많고 비도 오는 좁은 지우펀 골목에서는 코를 틀어막아야만 걸어도닐 수 있었다. 특유의 냄새 때문에 먹지도 못하겠고 길거리를 걷지도 못하겠고, 내가 의지할 거라곤 오직 신라면뿐. 70만원 들여서 먹은 신라면이라 그런지 맛있긴 하더라. 외국까지 가서 한국 라면은 절대 안 먹을 거라고 속단하지 말자. 웬만한 현지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고 내 비위를 너무 믿지도 말자! 황희영



모자로 내내  
달아쓰고 다녀야 했던  
내 얼굴

여름 하면 여행, 방학 하면 여행, 종강 하면 여행! 다들 이맘때만 기다렸다는 듯 우르르 여행을 떠나지만 여행이 좋기만 할 수는 없는 법. 활기찬 마음으로 떠났던 여행에서 다시사단한 해프닝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 여행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믿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행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 죽어도 같이 죽을 기세, 패키지 여행의 악몽

●Where  
캄보디아

가족들과 함께 캄보디아 패키지 여행을 갔다. 여행 기간이 생리와 겹쳤는데 어렸을 때라 생리 주기 조절법도 몰랐었다. 역시나 생리신은 여행지에서 깃드는 법! 어김없이 생리통이 내 몸을 공격했다.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서인지 소화도 되지 않았다. 거의 죽을 지경인데도, 패키지 여행이라 혼자서만 일정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 안 된단다. 나 좀 호텔방에 버려두고 가면 될 것을 꼭 일정에 포함시키는 가이드님. 단체 여행이다 보니 버스 안의 사람들은 날 볼 때마다 관찮냐는 말을 건넌다. 네, 제 생리는 안녕합니다. 대답이라도 해야 하는 걸까? 단체 여행은 정말 '단체'를 위한 여행이다. 단체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안녕은 상관없다는 말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리가 오나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을 고려한다면 이 점을 꼭 명심하길.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 야외 화장실을 찾아 뛰어다녔던 덕분에 캄보디아에서 가장 많이 본 것은 화장실이 되었다. 캄보디아 여행지에서 화장실 위치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하연서**



### 심심하고 외롭기 만렙이라면 혼여행!

●Where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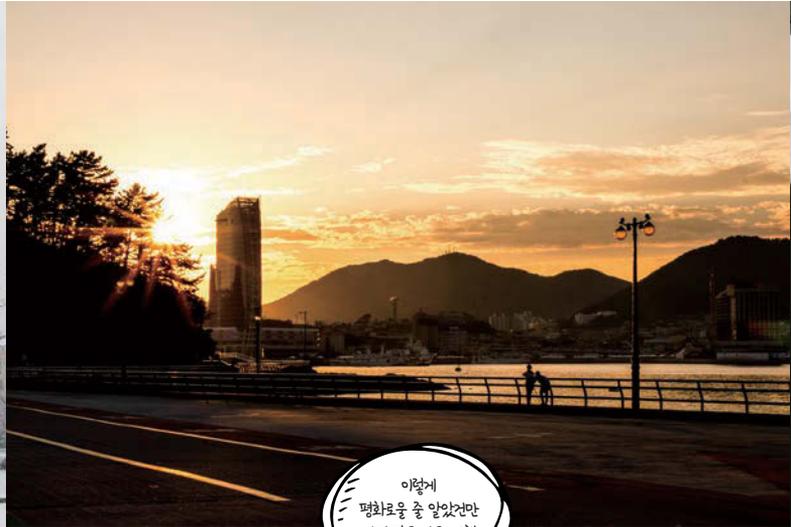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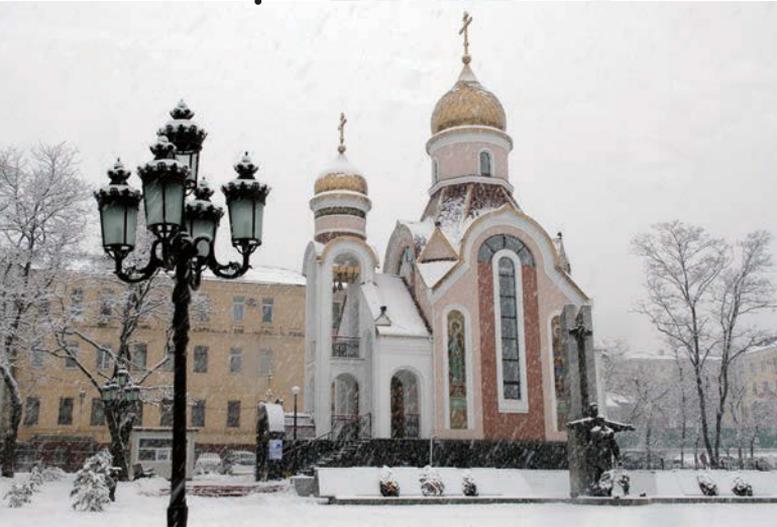
첫날은 재밌었다. 돌하르방도 보고 키 큰 나무도 보니 마음도 설레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술도 마시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영화도 봤다. 혼자 여행해도 관찮네! 그런데 나는야 두박이. 출발만 하면 버스를 오매불망 기다려야 한다. 혼자 버스를 기다리려니 너무 심심하다. 가지고 갔던 책도 모두 읽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있으니 우울해지는 것도 같다. 예쁜 곳을 가도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 셀카만 잔뜩. 내 얼굴만 찍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려니 조금 민망한 것도 같다. 맛집은 굳이 안 가게 된다. 혼밥이야 문제없지만, 맛있는 걸 먹고 함께 맛있다고 난리를 칠 사람이 있어야 더 맛있는 건데. 혼자 익숙한 나조차도 이렇게 심심할 줄이야. 조용히 여행을 즐기며 입에서 단내 나고 싶다면 혼여행하시길!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겠다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동행을 찾아보는 걸로! **김은지**



### 여행 메이트는 가족이 아닐수록 좋다는 진리

● Where  
전남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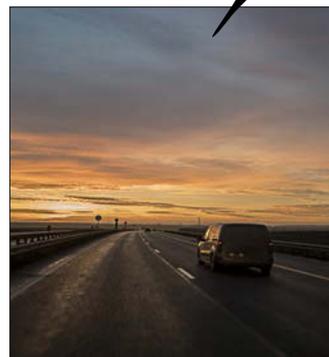
아빠가 오랜만에 여행을 제안하셨다. 할아버지도 모시고 여수로 가자는데, 저번 여행이 떠올랐다. 가족들과 다시 여행 가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고 다짐했었는데. 이번에는 할아버지도 함께 가시니 아무 문제 없겠지 생각했다. 아빠 차로 여행을 가니 편하고 좋았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폭 자고 일어나면 내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겠지...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 순간, 엄마와 아빠가 싸우기 시작한다. 가벼운 말다툼인 줄 알았는데 점점 언성이 높아진다. 거친 엄마와 불안한 할아버지와 그걸 지켜보는 나... 가시방석이 따로 없다. 차라리 대중교통이 나온 것 같다. 내려주세요 고속버스 맨 뒷자리 가운데 좌석 타고 갈게요 거기가 덜 불편할 것 같아요. 또다시 다짐한다. 내가 가족이랑 여행 가면 사람이 아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그래요 그게 좋습니다. 가족들과는 집에서만 봅시다. 임윤지



### 외국새림,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아요

● Where  
러시아

누군가 그랬지. 여행은 일단 무작정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비교적 싼 블라디보스토크행 티켓을 사서 러시아로 떠났다. 러시아 말은 1도 못 하지만, 그래도 대중 영어는 통하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얼음의 땅 후손들답게 차갑디차가운 러시아인들... 영어도 안 통하는데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았다. 말이 안 통하니 도움도 못 받고 길을 헤매기 시작했다. 이, 이, 익스큐즈 미... 해도 뻥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몇 번 마주치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심지어 어떤 키 큰 아저씨가 지나가며 나에게 뭐라고 소리친다. 분명 욕인 것 같은데, 인종차별을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듣지는 못 하겠고 똑같이 욕하자니 아저씨가 무섭다. 감사합니다를 러시아어로 최대한 크게 말해본다. 스바시바!!! 뭐 영어로 욕 듣는 것보다 나은 것 같긴 하다. 본인의 친화력을 믿고 무작정 떠나지 말아야 한다. 생각보다 러시아인들은 더 차갑고 짧은 언어는 통하지 않으니까. 심지어 영어를 싫어하기도 하니 영어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돼...! 정윤희





공공  
식당칸의 여유로운  
순식반다

### 일어날 소매치기는 반드시 일어난다

● Where  
스리랑카

치안이 좋다는 스리랑카 시골로 여행을 갔다. 그래도 불안해서 내 몸에 딱 붙는 크로스백을 매고 준비도 철저히 했다. 그 동네에 도착한 첫날, 숙소에서 만난 한 국인과 시대로 놀러 나가고 있었다. 길거리를 걷는데 오토바이와 내 가방이 함께 사라지네? 이게 오토바이에 잘못 걸린 건가? 소매치기인 건가? 영문도 모른 채 뜻밖의 뒤통수를 맞았다. 가방을 사수하려고 죽을힘을 다해 뛰다가, 결국 속도를 못 이기고 데굴데굴 바닥을 굴렀다. 오토바이 강도는 내가 굴러서 안쓰러웠는지 가방을 두고 유유히 사라지더라. 그렇게 가방은 지켜냈다. 그런데 무릎과 손에선 피가 나고 허리와 머리는 욕신거린다. 결국 지킨 돈을 병원에서 탕진! 소매치기 당했으면 잃었을 현금이나 내가 지불한 병원비, 소독비, 약값이나 비슷할 것 같다. 불운이 나만은 피해 갈 거라는 그 안일한 생각,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갑을 사수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 모두 버리자. 나는 생각보다 허술하고, 소매치기 범들은 경력이 오조오역이다. 윤나라



### 기차 여행의 로망? 폭망!

● Where  
내일로 국내 여행

다들 기차 여행의 로망 하나쯤은 있잖아요? 내가 바로 로망킹이었다. 폭염이지만 기차 안은 시원할 거야! 나와 같은 로망을 가진 친구들과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로 여행을 떠났다. 내일로 티켓은 좌석을 지정해주지 않는다. 기차 이용객이 별로 없다면 앉아 갈 수 있지만 자리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민망하게 비켜줘야 한다. 누군가 "저기요, 여기 제 자리..." 하는 순간 후다닥 짐과 함께 사라져야 하는 것. 몇 번 자리를 비켜주고 나니 지치더라. 그냥 식당 칸에 가서 죽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식당 칸은 에어컨이 조금 약하다. 마치 기차의 열을 내가 흡수하는 느낌? 관광지로 유명한 역을 지날수록 우리 같은 내일러들이 점점 식당 칸으로 몰려온다.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좁고 더워서 지쳐버렸다. 덕분에 정작 목적지에선 숙소 구경만 실컷 했다. 일단 쭉그러들고 지친 몸부터 에어컨 아래 누워야 했으니. 그러다 보면 하루가 저물고...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누워 있을 걸. 여름엔 에어컨 있는 집이 피서지인 것을 잊지 마시다. 정승연



지킨 돈은  
치료비로  
산뜻하게 탕진!

# 잡지사 에디터 하면 어때요?

한 학기 동안 <을의 하루>로 오만 직업군을 탈탈 털어봤지만, 아찔지마음 한구석이 계속 근질근질한 것은 기본?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 직업만 안 털었네? 에디터만 한 울도 없는데... (짱긋)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마감 울분을 토하는 동종업계사, 패션지 에디터와 함께 셀프 털이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사진 출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넘어질 땐  
꼭 손가락으로  
넘어져요.

그래야 원고를  
안 쓸 수  
있거든요!



## 하루 일과



**9:30AM** 잡지사 출근 시간은 대체로 늦은 편. 9시 반, 심지어는 10시 출근인 경우도 있다. 부럽다고? 그만큼 야근과 밤샘이 많다는 건데도? ^^

**10:00AM** 한 달에 한 번씩 아이템 회의를 한다. 보통 마감이 끝나고 일주일 안에 다음 달엔 어떤 기사를 쓸지 편집장님에게 컨펌 받는 형식. 때때로 지난달 발행된 기사에 대한 짤막한 코멘트나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aka 자이비판)

**12:00PM** 마감 주간엔 곡식이 위장에 닿을 새 없이 일하지만, 그 전까진 점심시간만큼은 프리덤! 개인적인 약속을 잡거나, 홍보 대행사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 뒷담(?)을 나누며 미팅 겸 식사를 하곤 한다.

**14:00PM** 지난달에 보판(다음 달로 기사 발행이 미뤄지는 것)된 기사 촬영 고고! 외부 촬영이 있을 땐 배차를 신청하면 회사 차로 편안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촬영 소품을 양손 가득 들고 택시를 탔다면 끔찍했을 테지만 기사님과 함께 목적지로 향해 덜 끔찍하다.(응?)

**15:00PM** 얼마 전 영화를 찍었다는 배우와의 화보 촬영&인터뷰. 처음엔 일하면서 잘생긴 사람 자주 봐서 좋았는데... 이젠 그저 '사람'일 뿐. 다 필요 없고 인터뷰 답변 잘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19:00PM** 촬영이 끝나면 퇴근하려 했던만... 브랜드 행사가 있는 날! 업계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 광광 찍고, 행사장에 온 연예인들을 동영상으로 찍어 공식 SNS에 올리면 고단한 에디터의 하루가 마무리된다. 이 정도면 할 만하다고? 오늘이 제일 한가한 날이었는데도? ^^

## 이번 주 '을'을 소개합니다



패션지 피쳐 에디터 2년 차. 어렸을 때부터 매달 서점 가서 잡지를 오조오억 권쯤 사다 읽으며 잡지사 에디터를 꿈꾸기 시작했다. 서툰데서러운 어시스턴트 시절을 착실히 밟고 드디어 정식 에디터가 된 지 어언 2년... 이제는 과거의 나를 밟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며 원고 한 줄 쓰고 머리를 쥐어뜯는 마감 노동자가 되었다.

## 핵심 정보



**하는 일** 보통 잡지사는 패션·뷰티·피쳐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팀마다 2~3명의 에디터가 있다. 보통 에디터 한 명당 한 달에 5~10개 정도 기사를 배당 받아 섭외부터 스태프 구성(포토그래퍼, 스타일리스트 등), 촬영, 인터뷰, 원고 작성을 마무리해야 한다. 비공식 업무로는 화보 촬영장에서 연예인에게 끊임없이 "예쁘다" "잘생겼다"를 외치는 일이다.

**초봉** 초봉의 갭 차이가 심한 편. 잡지 업계 투톱인 D사나 J사 같은 큰 잡지사를 제외하곤 들도 보도 못한 박봉을 주기도 한다고. 최저 1800만원~최대 3000만원 초중반 수준이다. 처음엔 어시스턴트나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연봉 후려치기(?)의 정도도 심하다.

**업무 강도** 잡지사의 업무 강도는 마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대체로 패션지 마감은 매달 15일 전후. 마감 전 1주일엔 거의 새벽 퇴근 또는 밤샘 근무의 무한 반복이다. 마감 주간엔 당연히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 그러나 마감 후 1주일 정도는 숨 쉴 구멍이 열리며 '워라밸'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은 누려볼 수 있다. 마감 후 하루나 이틀 정도는 쌓아뒀던 휴가도 쓸 수 있다고.

## 입사 꿀팁

### 면접에선 이런 걸 봐요

트렌디한 감각? 아이디어? 다 좋지만 어시스턴트로 면접을 볼 때 필수로 묻는 질문이 있으나... 체력이다. 긴긴 밤샘과 온갖 소품 나르기 노동에도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 도망가는 어시스턴트가 많아서... (눈물) 추후 경력 이직할 땐 에디터의 기사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보는 편.

### 이런 사람을 선호해요

에디터는 일반 회사원과 다를 줄 알았다며 입사 후 배신감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야나) 놀! 결국 에디터도 회사원이다. 마감이라는 약속 시간에 맞춰 원고를 내놓고, 혼자 예술 하지 않으며 조직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융통성도 견비해야 한다. 그래야 월급이 나온다...!

### 에디터는 이렇게 뽑아요

정기 공채로 에디터를 뽑는 곳? 거의 없다. 일단 박봉을 견디며 어시스턴트나 객원 기자로 일을 시작해 운이 좋으면 정식 에디터로 채용되는 시스템. 보통 자인의 소개 또는 N포털 사이트 '에디터 스쿨' 카페 등에 올라오는 어시스턴트 채용 공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다. 간혹 잡지 교육원을 통해 객원 기자 자리를 소개받기도 한다고.

## 팩트 체크

어시스턴트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던데...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다. 귀찮고, 하기 싫은 일들... 그런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 어시가 존재한다!(오열)  
화보 촬영장에서 에디터가 멋지게 디렉팅 하는 동안 어시는 다림질을 하고(스타일리스트가 할 때도 있다), 에디터가 고노하며 인터뷰 기사를 쓸 동안 어시는 녹취록을 본다. 촬영 소품을 픽업하고 반납하거나, 에디터가 요구한 자료를 서치하고, 심지어 마감 주간엔 간식 심부름도 해야 한다! 그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보면 작은 꼭지를 맡아 기사 쓸 기회가 생기고, 에디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오열X)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면 안 해서웨어가  
옷 못 입는다고 귀박 받았어요. 진짜 그런가요?

잡지 by 잡지지만, 보통 패션지 에디터를 중엔 대체로 패피가 많다. 트렌드를 빨리 캐치하고 비주얼을 다뤄야 하는 직업이라서 스타일을 중요시하기 때문. 심지어 면접 볼 때도 옷 입는 센스를 체크한다는 것이 에디터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러분, 에디터 면접 볼 땐 절대 율령머리에 까만 정장 입고 오지 마세요!

협찬 들어온 건 맘대로 가질 수 있나요?

뷰티 에디터들 자리에 가면 화장품 무덤이 있다. 매일 홍보 대행사나 화장품 회사에서 신제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기 때문. 그러나 화장품을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보통 반납을 전제로 협찬을 제공한다. 맘대로 가져가면 바로 철경철경! 명품 같은 고가의 제품은 협찬 받았다가 스크래치라도 나면 물어내야 할 수 있으니 한 개뿐인 목숨처럼 다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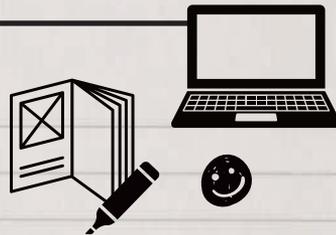
평장님들은 다들 그렇게 무섭나요?

'센캐'가 많던데... (호환들)

패션지 에디터는 정년 쟁거기며 오래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트렌디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기자들의 수명이 짧은 편. 그런 잡지계에서 천년만년 장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센캐'라는 의미일 수 있다. 간혹 센캐를 넘어 호환으로 갑분싸 만들고, 아파서 입원한 에디터에게 원고 마감 지키라고 화번 편집장님들의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기도 한다.



아, 저요?  
마감까지  
175329자  
넘었습니다!



수명이 짧다면... 그만두고 뭐 하나요?

하늘이 무너져도 먹고살 구멍이 있다고...(응?) 패션 에디터나 뷰티 에디터는 홍보 대행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패션 뷰티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요즘엔 홈쇼핑 쪽으로 옮기는 케이스도 눈에 띈다. 그럼 피쳐 에디터는...? 라이프스타일이나 리빙 파트를 맡았던 피쳐 에디터는 관련 기업에서 제2의 직업을 갖기도 한다. 사보를 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의 피쳐 에디터들은 여전히 나중에 뭐 먹고살지?를 고민 중이다.(룸곡)

폐간되는 잡지도 많던데요? 미래는 어떤가요?

그렇다. 현존 인류가 잡지를 읽는 마지막 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만 같아 에디터들도 마음 졸이고 있다. 회사에서도 디지털 파트를 강화하고, 디지털 에디터를 뽑아 영상 콘텐츠 제작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회의할 때 매거진 에디터를 앉혀놓고, 핸드폰으로 현장 영상 찍어 오라며 뒤달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다달이 잡지 폐간 소식이 우수수 들려와 등골에서 땀줄기 마를 날이 없다. 미래?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까지 해야 돼?"라며 치를 떨었던  
업무가 있나요?

가끔, 아니 꽤 자주 연예인들이 화보 찍다 말고 협찬 받은 고가의 물건들을 선물로 주면 안 되냐고 묻는다. 그것도 꼭 직접 안 묻고 매니저 통해서...! 그럼 에디터는 협찬사에 사정사정해 연예인 선물을 받아 내야 한다. 미션에 실패할 경우 내내 뽀롱뽀롱 표정의 연예인과 촬영을 이어가야 하고 연예인님들, 돈도 많이 버시면서 그 정도는 제발 남들 돈으로 사세요! 쯤!!!

에디터 때려 치우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마감 때문에 이틀 밤을 꼬박 새우고도 퇴근할 수 없을 때! 뻥뻥한 눈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할 때! 하루에 촬영 3개씩 할 때! 당장 사표를 쓰고 "사요나라~"를 외치고 싶다. 그런데 마감이란 게, 끝나고 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살 만해지는 거다. 가끔 주변에서 기사 잘 봤다고 연락이 오거나, 내가 찍은 화보가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될 땐 심지어 보람까지 느낀대 에디터... 국사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존재일까...☆



# 대학내일 미워하는 이야기.txt

「대학내일」에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으며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대학에 다니던 때에 나는 「대학내일」을 싫어했다. 아니, 딱히 싫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얇은 잡지를 학내에서 볼 때마다 “흥” “췌” “뽕!” 정도의 시선을 던지며 지나치곤 했다. 죄 없는 「대학내일」을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아니, 딱히 미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표지, 바로 그 표지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지에 등장하는 여대생 모델 때문이었다. 말간 얼굴에 긴 생머리, 반짝이는 두 눈...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 보이는 얼굴. 여대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무의식중에 떠올릴 그 얼굴.

표지의 여대생을 한 번 보고, 소원도에 비친 나를 한 번 본다. 도저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여대생이라 할 수 없다. 내 머리는 늘 산발, 심지어 감지 않아 딱이 졌다. 화장은커녕 세수도 안 할 때가 태반이고, 누렇게 뜬 피부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한 움큼, 누더기 같은 옷에는 곰팡이까지 슬어 있다. 말지도, 깨끗하지도, 자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학내일」의 여대생을 볼 때마다 화가 났다. 그건 질투심보다는 적개심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그 표정, 내일은 분명 밝을 거라 기대하는 그 표정에 화가 났다. 그렇지. 저런 여대생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기회는 널려 있으며 내일은 밝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는 내일이 없었다. 적어도 「대학내일」의 표지 모델인 여학생에게 주어진 그런 내일은.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살았던 말인가. 가장 아름다워야 했을 스무 살 젊은 날을 왜 그렇게 날려버렸던 말인가. 그 시절 나는 두꺼운 아이리안보다 중요한 것이 밝은 미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청결이야말로 연애의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냉소적인 여자였다. 하지만 스무 살이 진실로 냉소적이었을 리는 없다. 스무 살이 냉소적인 이유는 냉담함을 가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다. “그만 것도 영화라고 보니?” 라고 묻던 나이 많은 삼수생 오빠도,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나?” 하고 눈

을 부라리던 남자 선배도, “넌 나무같이 단단해 보여”라고 말해주던 여자 선배도, “그런 건 너무 치졸하지 않니?” 하고 비웃던 여자 선배도, ‘게오르그 루카치’니, ‘허우샤오시엔’이니, ‘형이상학적 고찰’이니 같은 단어를 남발하던 이들도,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체를 하며 기를 쓰고 자신을 지켜야만 했을 것이다. 원칙을 세워야 해, 성을 쌓아 올려야 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안 그러면 휩쓸리기 십상이니까. 안 그러면 잡아먹힐지도 모르니까.

스무 살이 된 나에게 세상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쳐왔고, 그 무수하고 다채로운 자극 속에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서 빨리 이 시기를 탈출해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서 빨리 유능해지고 싶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고 싶었다. 최소한 문제를 읽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빨리 마흔이 되기만을 바랐다.

**마흔이 넘으니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이다.  
전국의 스무 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스무 살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즐겁다.**

이제 나는 마흔을 갓 넘겼다. 꿈을 이룬 것이다. 마흔이 넘으니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이다. 이제 나는 그 시절 간절히 원하던 대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 풀이는 여전히 어렵다.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도 즐겁다. 전국의 스무 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스무 살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즐겁다.

내일이라고는 없을 것처럼 살던 스무 살의 내게, 마흔 살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없다. 미안하지만 없다. 화장을 곱게 하고 좀 웃으라는 이야기나, 미련 떨지 말고 주택청약이라도 들라는 이야기나, 네이버의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나(그때만 해도 네이버는 야후나 다음,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나, 실컷 놀고 실컷 즐기라는 이야기 같은 것도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정쩡하고 괴롭고 갑갑하고 엉망진창인 그 시기는 원래 괴로워하면서 넘기는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기 때문이다. 괴로워야 할 때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으리라고는, 멀쩡히 살아서 자식까지 둘이나 낳고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나의 내일을 상상하지 못한 것만큼이나 「대학내일」이 여전히 살아남으리라는 상상도 못 해봤다. 심지어 내가 「대학내일」에 글을 쓰고 있으리라는 상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20년 가까이 살아남았다. 어쩌면 이것, 살아남은 것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대학내일」보다 지금의 「대학내일」이 훨씬 재미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재미있었다면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딱히 미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학내일」, 건승하십시오.

## 20대 최애 아이템 | 20 컬러렌즈

노동자 색은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꿔주기 때문에 컬러렌즈는 20대 사이에서 포기할 수 없는 아이템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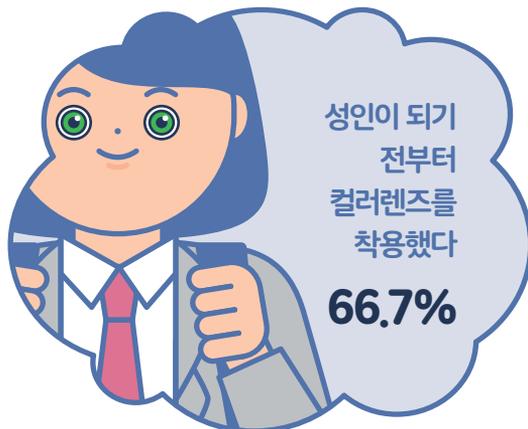
여름방학과 휴가, 각종 페스티벌이 기다리는 7월을 맞아 컬러렌즈에 대한 20대 인식을 알아보았다.

참고로 본 조사는 최근 1년 내 컬러렌즈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DITOR 남민희 minhee.nam@univ.me RESEARCHER 이재훈 ILLUSTRATOR 김다희

### 01 컬러렌즈 못 잃어 예뻐 못 잃어

컬러렌즈는 '예뻐'을 크게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외모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착용 중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7%가 성인 이전에 컬러렌즈를 착용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때부터(39.3%) 착용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성년자일 때부터 컬러렌즈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51.3%)이 아직도 자신과 어울리는 컬러렌즈를 찾아 헤매는 '컬러렌즈 유목민'이라고 답했다. 또한 절반 이상(53.3%)이 최근 1년 사이 세 가지 이상의 컬러렌즈를 착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 02 메이크업의 완성은 컬러렌즈

조사 결과 20대는 컬러렌즈를 일상적으로 착용(43.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 중 1명(31.0%)은 컬러렌즈를 끼는 것은 '생얼'이 아니고 생각했고, 5명 중 2명(42.3%)은 메이크업이나 코디에 따라 다른 컬러렌즈를 착용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20대는 화장을 하는 것처럼 컬러렌즈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응답자의 29.0%는 컬러렌즈를 일상이 아닌 페스티벌처럼 특별한 날에만 착용한다고 답했는데, 절반 가까이(48.7%)가 이런 특별한 날만을 위해 렌즈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 컬러렌즈에 대한  
20대 인식 조사

● 조사 기간 2018년 6월 26일 ~ 6월 27일(2일간)  
조사 대상 최근 1년 내 컬러렌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대 여성 300명  
조사 기관 20대연구소  
표본 오차 ±5.66%p(95% 신뢰 수준) 더 자세한 조사 결과는 [20slab.org](http://20slab.org) 참고

● 대한내일20대연구소는 국내 최초 유일의 20대 대학생과 직장인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① [www.20slab.org](http://www.20slab.org)  
② [www.fb.com/20slab](http://www.fb.com/20slab)

③ [post.naver.com/20slab](http://post.naver.com/20slab)  
④ [opm.wikitree.co.kr/20slab](http://opm.wikitree.co.kr/20slab)

언제까지  
컬러렌즈를  
착용할  
예정인가?

20대 후반  
30.3%



30대 초반  
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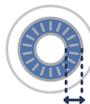
### 컬러렌즈 구매 시 고려 요소 TOP3



착용감  
25.7%



디자인  
15.7%



직경  
15.3%

### 03 컬러렌즈 착용 나이의 마지노선은?

주로 미성년자 때부터 컬러렌즈를 착용해왔다고 답한 20대가 과연 언제까지 컬러렌즈를 착용할 예정인지 궁금했다. 20대 후반(30.3%)까지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29.3%)까지라는 답변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20대가 마지노선을 30대까지라고 말했으며 40대 이후에도 계속 착용하겠다는 비율은 2.7%뿐이었다. 그러나 10명 중 1명(15.7%)은 나이와 상관없이 컬러렌즈를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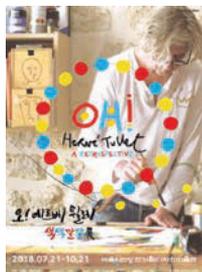
### 04 선택 받는 컬러렌즈의 조건

20대가 컬러렌즈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착용감(25.7%)으로, 20대 후반일수록 중시했다. 고려 요소 2위는 그래픽의 디자인(15.7%)이었는데, 그래픽의 색상(7.0%)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실제 홍채 같은 디자인부터 우주를 담은 듯한 디자인까지 매우 다양한 컬러렌즈가 출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20대가 컬러렌즈 구매 '뽐뿌'가 오는 순간은 지인이 사용하는 렌즈를 봤을 때(34.3%)라고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추천(28.3%)과 연예인 착용(14.3%)이 뒤를 이었는데, 뷰티 유튜버 추천(11.3%)을 앞질러 눈길을 끈다.

### 05 20대 최애 컬러렌즈 브랜드 '오렌즈'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렌즈 브랜드는 '오렌즈(39.3%)'로 나타났다. '오렌즈'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장이 많아 구하기 쉽기 때문(35.6%)'이었고, '다양한 디자인(30.5%)'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렌즈는 온라인 구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매장 수와 '디자인'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2위는 '아큐브(21.7%)', 3위는 '렌즈미(16.3%)'였다.





**예술의전당,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깔展' 진행**

영국에 앤서니 브라운이 있다면, 프랑스엔 에르베 툴레가 있다! 그래픽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러스트레이터 에르베 툴레의 전시가 런던 테이트 모던, 뉴욕 모마를 거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을 찾는다. 미공개작을 포함해 총 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7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s://hervetullet.modoo.at>



**오리온,  
'상어밥' 출시**

34년간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고래밥'의 아성을 이어갈 신제품 오리온 '상어밥'이 출시됐다. 해파리, 바닷가재, 소라, 새우 등 기존 고래밥에는 없던 새로운 모양이 추가됐다고. 상어밥은 진한 새우 맛에 타르타르 소스의 새콤달콤함을 더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전국 편의점과 마트에서 구매 가능.



**레드불,  
'랜덤게임' 최종 결승전 방영**

레드불이 랜덤 게임 공식 대회 '레드불 랜덤게임'을 열었다. 서울 소재 10개 대학에서 3천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참여해 학교 대항전을 펼친 결과, 연세대 팀에 우승의 영광이 돌아갔다. 연세대 팀에게는 레드불 랜덤게임 초대 우승 학교 타이틀과 함께 초호화 MT가 지원됐다고. 레드불 랜덤게임 최종 결승전의 현장은 7월 15일, 22일 낮 12시에 OGN에서 방영된다.

**Weekly  
Hot & New**

이주의 주목할 만한 소식들



**스킨푸드,  
신제품 '비타컬러 코튼 립락카'**

여름 맛이 과증 메이크업에 딱 맞는 제품이 새로 나왔다. 스킨푸드에서 출시된 '비타컬러 코튼 립락카'다. 부드럽게 발리면서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 공기처럼 가벼운 저점도 오일을 배합해 입술에 '착붙'된다고. '살구퓨레' '딸기요거' '피치나나' '석류베라' '오렌자몽' '사과멜론' 등 총 6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투스셈플레이스,  
'수박 빙수' 한정 판매**

수박 귀신을 모여라! 디저트 카페 투스셈플레이스에서 수박 빙수와 수박 주스를 오는 8월 말까지 한정 판매한다. 곱게 갈은 얼음 위에 수박을 가득 올리고 달콤한 딸기를 더한 '수박 빙수'와 수박을 듬뿍 넣어 갈아 만든 '수박 주스'로 여름철 딱 떨어질 입맛을 제대로 저격할 예정이라고. 전국 투스셈플레이스 매장에서 한정 판매.



**스파오,  
'짱구 파자마 시즌2' 출시**

지난해 SNS를 뜨겁게 달군 SPA 브랜드 스파오의 '짱구 파자마' 시즌2 라인이 새로 나왔다. 애니메이션 <짱구> 속에서 짱구가 평소 즐겨 입고 다니는 일상복 디자인부터 유치원 원장 선생님 정장 디자인, 짱구가 즐겨 먹는 초코비 과자가 그려진 디자인까지 총 3가지 스타일로 구성됐다. 잠옷과 함께 액션가면 슬리퍼와 흰둥이 슬리퍼를 선보여 '완전 예감을 불러 모은다'.



**서울문화재단,  
자원활동가 '길동이' 모집**

'서울거리예술축제 2018'을 이끌어 갈 자원활동가 '길동이'를 모집한다. '길' 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길동이'는 축제 현장을 누비며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함께 만들 예정. 문화 활동가로서 축제 운영, 공연 지원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다방면에 걸친 축제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세븐일레븐,  
'명란크림스파게티' 출시**

JMT 명란 파스타를 편의점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됐다. 세븐일레븐에서 '명란크림스파게티'가 새로 나온 것. 명란 특유의 짭조름한 맛에 크림의 고소함이 더해져 구미를 당긴다. 별도의 조리 과정 없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어 자취하는 2030 세대에겐 알맞다.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지만, 더운 여름밤 맥주 안주로도 안성맞춤이다.

01

### AK 홍대리 15기 ~7/17



올여름은 애경그룹 홍보 대학생 리포터, AK 홍대리 15기로 불태워봐. 애경그룹&계열사(애경산업, 제주항공, AK플라자)와 관련된 여행, 뷰티, 패션, 라이프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이야. 애경그룹 행사 참여와 취재도 할 수 있다. 매월 활동비를 주고, 우수 활동자에게 애경그룹 및 계열사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항공권도 준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지?

**주최** 애경그룹  
**접수 기간** ~2018년 7월 17일(화) 22시  
**태그** #콘텐츠크리에이터 #꿈꾼다면.여기로

02

### 2018 한화자전거평화여행 <다름의 동행, 함께 멀리> ~7/31



몸과 마음을 함께 불태우고 싶다면 2018 한화자전거평화여행 <다름의 동행, 함께 멀리>로 불태워봐! 이주 배경 청소년과 비이주 배경 청소년, 한화 임직원이 함께 제주 환상자전거 길을 종주하고 한라산을 등반하는 프로그램이야. 참가비는 무료, '다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놓치면 안 되겠지?

**주최/주관** 서울시립청소년 문화교류센터 / 미지센터  
**접수 기간** ~ 2018년 7월 31일(화)  
**태그** #롤림이.아닌.다름 #다름을.다함께

그래 바로 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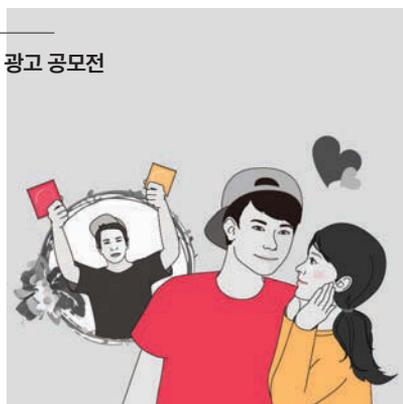
진짜 버닝은

원래 방학부터야~!

## 올여름 버닝할 수 있는 활동 BEST 4

03

### 바른생각 광고 공모전 ~8/28



어느 공모전보다 핫한 바른생각 광고 공모전으로 여름방학을 불태워봐! 공모 주제는 브랜드 광고, 제품 광고, 콘돔 사용 권장 광고로 총 세 가지이며, 인쇄 부문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있어. 지원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작품 접수는 바른생각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돼! 수상 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콘돔 1년 치를 준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지?

**주최/주관** 바른생각 / 컨비니언스  
**접수 기간** ~ 2018년 8월 28일(화)  
**태그** #나쁜.생각말고 #바른.생각으로

04

### 2018 한국필립모리스 바다사랑 캠페인 ~7/13



2018 한국필립모리스 바다사랑 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어! 쾌척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변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활동이야.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해수욕장 한 곳을 정해서 지원하면 돼. 소정의 봉사활동비와 티셔츠 및 봉사 도구가 지원되고 봉사 활동 참가 확인사까지 발급해준다 하니 놓치면 안 되겠지?

**주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포럼  
**접수 기간** ~ 2018년 7월 13일(금) 24시  
**태그** #아름다운.바다 #푸르게.푸르게

#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유영민 ymplay@univ.me



## 극단비유, 열린극장

뮤지컬 <메리골드>  
[www.ticketlink.co.kr](http://www.ticketlink.co.kr)

뮤지컬 <메리골드>가 9월 30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개막한다. 학업 스트레스, 불행한 가정환경, 집단 따돌림 등 인생의 큰 상처를 지닌 인물들의 치유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야. 등장인물들의 상처 극복 과정을 통해 관람하는 관객들도 함께 치유 받는 뮤지컬로 '소확행 뮤지컬', '자살 예방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공연 기간**  
~ 2018년 9월 30일(일)  
**공연 장소**  
대학로 열린극장

## 세우테크노산업, 으랏차차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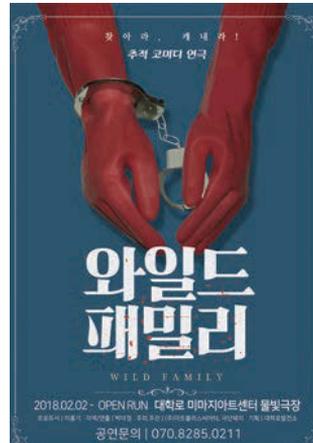
## 연극 <형제의 밤>

[www.ticket.interpark.com](http://www.ticket.interpark.com)

연극 <형제의 밤>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 세우아트센터에서 공연해. 부모의 재혼으로 형제가 된 두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2인극으로, 각박한 일상 속에서 가족의 참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야. 현실보다 더 리얼한 두 형제의 유치찬란 코미디 난투극이 보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공연 기간** 2018년 7월 13일(금) ~ 2018년 7월 31일(화)  
**공연 장소** 대학로 세우아트센터 2관

## 극단돼지



## 연극 <와일드 패밀리>

[www.ticket.interpark.com](http://www.ticket.interpark.com)

연극 <와일드 패밀리>가 7월 29일까지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에서 공연해. 칼국수 집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코믹 스토리를 담은 공연으로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입문자용 공연이야. 기막힌 반전과 코믹한 생활 연기가 펼쳐지는 연극 <와일드 패밀리>가 보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공연 일정** ~ 2018년 7월 29일(일)  
**공연 장소** 대학로 미마지 아트센터 물빛극장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에스티오(STO)	기획 MD, Off-line 영업, On-line 영업, 영업지원, 재무기획, 경영관리	thesto.kr/recruit/apply	~ 7.16	STO 2018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
한국전기안전공사	경영관리, 기술, 연구, IT, 시설, 진단, 기계	kesco.or.kr	~ 7.17	한국전기안전공사 2018년도 하반기 공개 채용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LG트윈스	제2회 LG트윈스 대학생 공모전	사진	~ 7.22	최우수상(1인) LG전자 최신 노트북, 우수상(2인) LG전자 최신 휴대폰, 입선(10인) LG트윈스 홈경기 평일 예매권
롯데엔터테인먼트	2018 제7회 롯데 크리에이티브 공모전	영상, 시나리오	~ 7.25	[시나리오 부문] 대상(1편) 1억원, 입상(2편) 1천만원 [독립영화 부문] 대상(1편) 3천만원, 입상(1편) 1천만원
JTI코리아	제2회 JTI코리아 휴대용 재떨이 디자인 공모전	디자인	~ 7.31	1등(1인/팀) 500만원, 2등(1인/팀) 200만원, 3등(1인/팀) 100만원, 우수상(4인/팀) 50만원
부산자유시장	2018 부산자유시장 자유문화 공모전	영상, 공간 디자인	~ 8.5	[영상 부문]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1팀) 50만원, 우수(2팀) 각 30만원 [공간 디자인 부문] 대상(1팀) 200만원, 최우수(1팀) 100만원, 우수(2팀) 각 50만원
한국잡지협회	제11회 전 국민 잡지 읽기 공모전	수필, 영상 등	~ 8.31	대상(1인) 300만원, 최우수상(1인) 200만원, 특별상(2인) 100만원, 우수상(7인) 50만원, 장려상(10인) 30만원
넥스컴퓨터박물관	2018 넥스컴퓨터박물관 가상현실 콘텐츠 공모전	콘텐츠	~ 8.31	상전벽해상(1팀) 500만원, 무아지경상(1팀) 300만원, 물아일체상(1팀) 100만원, 호접지몽상(1팀) 100만원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MBC	MBC 대학생 나눔 서포터즈 4기	5개월	~ 7.10	활동비 지원, 수료 증명서 발급, MBC 사옥 견학 및 사회공헌 관련 현장 탐방 기회 제공
한국필립모리스	2018 한국필립모리스 바다사랑 캠페인	3일	~ 7.13	봉사활동비 지급, 티셔츠 지급, 봉사활동 참가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 대학생 써포터즈	4개월	~ 7.15	활동 인증서 수여, 활동 우수 팀 시상 및 상금 수여/홍보 물품 지원 및 매월 활동비 지원, 청년고용정책 멘토링
애경그룹	AK 흥대리 15기	6개월	~ 7.17	활동비 지급, 수료증 및 단체복 발급, 애경그룹 및 계열사 행사 참여 우수 활동자 시상, 실무진 멘토링 및 교육, 입사 지원 시 서류 면제 혜택 (우수 활동자 해당)
맥도날드	맥도날드 스토리 크루 1기	4개월	~ 7.23	우수 활동자 상품 증정, 우수 활동자 겨울방학 인턴십 제공 맥도날드 임직원과의 만남, 매월 활동비 증정
세계음식문화연구원	대한민국 향토식문화대전 서포터즈	2개월	~ 7.31	전용 출입증 발급, 박물관 무료 초청장 발급, 현장 스태프 선발 시 우선 채용, 기념품 증정,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장소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 KBS 미디어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 여행전	www.ticketlink.co.kr	7.23 ~ 9.26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http://sbasncc.tistory.com/843	과정별 상이	교육과정별 상이(홈페이지 참고)

# 무언가에 가슴 뛰었던 적 있나요? 한화 Lifeplus 앰배서더



늘 같지만 다른 우리의 일상. 평범한 대학생활을 좀 더 다채롭게 즐기고 싶어서 한화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 활동에 도전했다는 3명의 대학생들을 만났다.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해온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EDITOR 김민정 dodohanlife@univ.me



스카이박스에서 프로야구 직관



2018 Lifeplus 빛꽃피크닉페스티벌



Lifeplus 비어요가



### #소소한 요리 프로젝트

**정민음**  
우송대 외식조리학과

제 버킷리스트는 소소한 요리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실현하는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고 각 나라의 음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었죠. 덕분에 여행지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귄 수 있었죠. 이후 음식 사진과 후기를 SNS에 올리며 제 나름대로 콘텐츠를 정리해 나갔어요. 그 결과 오랜 꿈이었던, 여행과 요리를 주제로 한 책을 쓰고 곧 출간을 앞두고 있죠. 간혹 SNS에서 제 요리를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고자 직접 맥주를 만들어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죠. 사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편인데, 이번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소통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요리를 하며 지내는 제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고요. 누군가에게 삶의 에너지와 기쁨을 준다는 점에서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 활동 역시 요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 #새로운 세상을 여는 창

**이병민**  
고려대 수학과

꾸준히 음악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대외활동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졸업이 다 되어가니 하나쯤 해보고 싶었고, 한화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를 선택했어요. 제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활동했던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Lifeplus 빛꽃피크닉페스티벌이었어요. 국내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큰 행사였는데, 제가 만든 곡이 행사 테마곡으로 선정됐어요. 덕분에 제가 부른 남자 버전과 씨스타 소유 씨가 부른 여자 버전 음원이 페스티벌 내내 행사장에 울려 퍼졌죠. 그 일로 인해 제 꿈을 보다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 활동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게 하는 창문인 것 같아요. 창문으로 바라보는 유리 넘어 세상은 평면적이지만 그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세상은 보다 입체적인 것처럼 말이에요.



### #병맛 피아니스트라 행복해!

**김단비**  
동덕여대 피아노과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어요. 새로운 음악과 페스티벌을 좋아했던 만큼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 활동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시작하게 된 활동이고요. 막상 활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건 바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한 곡과 영상을 편집해 뮤직비디오로 만들거나 병맛 컨셉으로 요가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포스팅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덕분에 #병맛 피아니스트라는 별명도 얻었죠. 스스로 좀 망가지면서 다른 사람을 웃기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 별명이 생기는 게 좋았어요.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 활동은 제 1년 간의 대학생활에 리본을 달아줬어요. 선물을 줄 때도 좋은 포장지와 예쁜 리본을 장식해서 주면 받는 사람이 더 기쁜 것처럼, 제겐 이 활동이 그런 예쁜 리본이 되어준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살은 한 가지 색이 아닌 수만 가지 색이랍니다



살은,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살을 더 살리기 위한 이야기를 시도합니다



Lifeplus 앰배서더란? 한화 금융 공동 브랜드 Lifeplus의 철학인 '살을 더 잘 사는 이야기'를 실현하는 대외활동. 꿈과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평범한 일상을 다채롭게 물들일

라이프플러스 앰배서더를 모집합니다

 Lifepus

# 앰배서더 3기 모집

2018 Lifepus Ambassador 3rd

- 지원대상** 본인만의 라이프스타일이 뚜렷한, 인스타그램을 즐기는 대학생 누구나!
- 활동내용** Lifepus 관련 인스타그램 미션 | Lifepus 행사 참가 | 버킷리스트 실현
- 활동혜택** Lifepus 지원금 월 100만원 | 특별한 LifepusX 행사 우선 초대  
월 우수 활동자 시상 및 수료증 지급 | 최종 우수 활동자 해외 여행상품권 지급

- 선발일정**
1. 지원기간 | 2018년 7월 9일 ~ 7월 25일
  2. 서류발표 | 2018년 8월 1일
  3. 면접심사 | 2018년 8월 14일
  4. 최종선발 | 2018년 8월 16일

자세한 내용은 [www.lifepus.co.kr](http://www.lifepus.co.kr) 참고

Lifepus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이 함께합니다.

# 20

## 대학내일

20대를 위한 라이프 가이드 매거진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click!

[www.univ20.com](http://www.univ20.com)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



### Magazine

매주 월요일 전국 캠퍼스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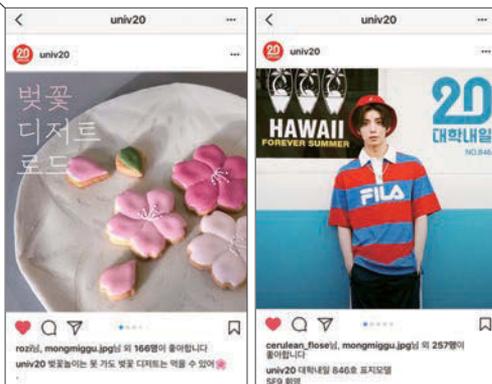
### YouTube

대학생 폭풍 공감 영상들이 가득!



### Instagram

#소통해요 #선팔환영 @univ20



### Facebook

56만 독자들과 함께 보는 꿀잼 콘텐츠 @UNIVtomorrow



# 20

## 대학내일



### 여름방학 휴간 안내

### 2018.7.16~2018.08.19

방학 기간 동안 대학내일 종이잡지를 휴간합니다

독자 의견 및 문의, 20's voice 기고는 [magazine@univ.me](mailto:magazine@univ.me)로 보내주세요.

다음호는 2018년 8월 20일에 발행됩니다.

모두 근사한 여름 보내시길!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sup>®</sup> 컵반**

햇반컵반 하나면 어디나 **맛집**

가정식전문  
**1인  
맛집**

**비빔밥이 맛있는 집**

감칠맛 ★★★★★



햇반컵반은 '컵에 담은  
가정식 '반(飯)'상을 의미합니다